

# 이중언어교육의 필요성과 정책 제언\*

권순희\*\*

## <차 례>

- I. 서론
- II. 다문화 가정 양상과 이중언어교육
- III. 호주의 이중언어교육 정책
- IV. 이중언어교육 정책 제언
- V. 결론

## I. 서론

본 연구는 다문화 시대에 이중언어교육의 필요성과 정책을 제안하기 위해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와 호주, 미국을 중심으로 한 외국의 사례 검토를 목적으로 한다.

미래사회는 영어몰입교육에만 교육적 투자를 할 것이 아니라 다중언어교육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요즘 원어민 수업, 영어로 수업을 전개한다는 국제중학교 허가 등 영어몰입교육 정책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그러나 이제는 다문화 사회이고 다중언어를 구사해야 할 사회로 변모하고 있다. 시대 요구에 맞춰 다중언어교육 정책의 시초라 할 수 있는 이중언

---

\* 이 논문은 국어교육학회 제41회 학술발표대회(2008. 12.)에서 발표한 내용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 전주교육대학교 조교수, shkwon@jnue.kr

어교육 정책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이중언어교육은 다문화 사회에서 이문화간 갈등을 해소하고 소통과 이해를 촉진시켜 궁극적으로 사회통합에 기여한다. 이중언어교육 정책은 궁극적으로 한국어 교육 정책과 맞물려 있는 문제이고, 한국어 교육의 발전을 가져올 것이다.

어떤 한 사회에서 사람들이 쓰고 있는 언어가 한 가지 이상일 때 이중언어교육의 문제가 발생한다. 이중언어 문제가 대두되기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 부모로부터 한국어를 제1언어로 물려 받고 학교 교육도 제1언어로 이루어졌다. 학교에서 제2언어를 가르치더라도 항상 제1언어가 가장 강한 언어였다. 그러나 결혼이민자 자녀나 외국인 근로자 자녀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 가정에서 익힌 언어와 학교 교육의 언어가 다르기 때문이다. 다문화 사회가 우리나라보다 먼저 이루어진 캐나다, 미국, 호주에서는 ESL(English as a second language)교육과 이중언어교육에 관심을 쏟고 있다. 우리나라도 다문화 사회가 되면서 제2언어로서의 국어교육(KSL : Korean as a second language)에 대한 관심이 일고 있으며 이중언어교육에 대한 관심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미래 사회의 인구 추산을 보면 2010년에는 한국 체류 외국인 수치가 1,249,765명에 이를 것이며 이는 향후 총인구로 추정되는 49,219,537명의 2.54%에 이르는 수치라고 한다. 따라서 한국사회는 국가적 차원에서 다문화 사회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다문화 사회로의 진입은 다문화 교육의 필요를 낳는다. 국제화 시대, 다문화 사회 속에서 다문화 교육, 이중언어교육은 미래 사회를 준비할 학생들에게 필수 사안이 되고 있다. 미래 한국 사회는 다문화 사회로 더 많이 진입할 것이며 인구 구성의 다양화로 다문화 사회 준비를 위한 교육적 대응이 절실히 필요하다.

한국 사회는 오랫동안 단일 민족의 신화에 기반하여 전통성과 정통성을 구축하여 왔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사회는 더 이상 이러한 신화를 기반으로 사회의 통합과 결속을 유지해 나갈 수 없는 상황에 처해있다.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의 감소 및 노동력의 감소, 3D업종 종사자의 기피로 외국인 노동자의 국내 진출, 국제간 이동의 증가와 타문화에 대한

인식의 확장에서 비롯된 국제결혼의 증가, 특히 국내 농어촌 결혼문제로부터 제기된 국제결혼의 증가 등은 향후 우리 사회가 더 이상 단일 민족으로 존재할 수 없게 될 것이라는 예측을 가능하게 한다. 나아가 다문화 사회 변화는 향후 한국 사회를 위협하는 심각한 도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다문화 사회에서는 외국인 및 다양한 문화의 유입으로 많은 문화적 갈등이 야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내국민과는 다른 인종, 종교, 혈통, 민족, 문화에 속한 사람들이 차별 대우를 받거나 배척 될 가능성이 크고, 여기에 경제적, 정치적 이해관계까지 겹쳐 내국민과 이주민간에 심각한 갈등과 분쟁이 야기될 수 있다. 지난 2005년에 발생한 프랑스 폭동 사태나 호주의 크노롤라 사태가 이러한 걱정이 기우가 아님을 잘 보여준다. 철학, 인류학, 사회학, 행정학, 정치학, 여성학 등에 종사하는 학자들은 다문화 사회를 한국 사회가 직면한 새로운 도전으로 인식하고 이에 대한 해법 찾기에 골몰하고 있다.

다원주의 국가의 경험이 거의 없는 한국사회에서 주류 인구집단(majority)이 아닌 인종적, 민족적, 문화적 소수자들은 뿌리 깊은 한국의 혈통주의에 입각한 단일민족의 신화로 일상생활에서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인종적, 민족적, 문화적 소수자들의 문제는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사회가 해결해야 할 우리 문제가 되었다. 국민 생활의 변화는 의식의 변화, 문화의 변화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학교에서 다문화 이해 교육을 시행할 때 한국 사회 구성원의 의식과 문화, 생활에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다.

현재 학교 교육 차원에서 다문화 사회에 대한 연구는 초기 단계이다. 2006년도부터 교육부에서 다문화 교육에 대한 많은 관심조영달 외, 2006 ; 오은순 외, 2007 등)을 보이기 시작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또 여성정책연구원을 중심으로 한 “다민족 다문화 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정책 패러다임구축(조혜영 외, 2007 등)”은 성과있는 연구물이다. 노동부를 중심으로 한 결혼이민자 직업교육 및 한국어교육, 또 공공 기관 및 민간 단체를 중심으로 한 한국어 교육 등은 다문화 사회에 대한 대처가 되고 있다.

언어 생활의 일환으로 이중언어교육 역시 다문화 사회라는 새로운 문

제 상황에 대한 하나의 해법이 될 수 있다. 언어는 오랫동안 많은 학자들에 의해 사회통합기제로서 그 역할이 크게 강조되어 소통<sup>1)</sup>의 개념으로 논의되어 왔다. 이중언어교육은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이들이 문화적 편견을 넘어서 서로 이해할 수 있으며 나아가 우리라는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따라서 이미 오래전부터 다문화 사회를 경험한 북미, 유럽, 호주 등의 국가에서는 이중언어교육을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 수단으로 적극 활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보다 30년 정도 일찍 다문화 사회를 경험한 호주는 1980년대 후반부터 연방정부, 주정부, 지자체 차원에서 이중언어교육을 통한 이주자통합정책을 시행했으며, 이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타자에 대한 몰이해로 다문화 사회가 도전받고 있다는 문제의식을 견지하고 호주는 1990년대부터 소수민족언어 집중 교육이라는 과제를 설정하여 꾸준히 추진해 오고 있고, 이민자를 중심으로 한 언어교육 지원 정책을 병행하고 있다. 이문화 간 교류 능력을 배양하고 다문화를 수용하는 데 기여하는 이중언어 정책과 이주민과 호주인의 융합을 위한 영어 교육 지원 정책과 소수언어교육 지원 정책이 그것이다. 호주의 사례는 이제 막 다문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우리에게 타산지석이 된다.

---

1) 고부 간의 갈등으로 의사소통의 단절을 생각해 보자. 예를 들면, 두어 조각이 상한 꿀을 상한 부분만 버리고 나머지 부분을 먹으려는 시어머니와 조금이라도 상하면 꿀 한 개 전체를 버려야 한다고 생각하는 며느리와 의사소통에서 갈등이 있다고 하자. 표면적으로는 언어나 행동의 갈등으로 볼 수 있지만 심층적으로는 각 개인의 ‘삶의 역사’, ‘삶의 문화’의 차이로 발생한 갈등이라 해석할 수 있다. 1960년대 후반기나 1970년대 전반기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가정을 이루었던 시어머니와 1970년대 경제적 부흥기에 태어나 경제 호황기인 1990년대 가정을 이루고 미생물을 연구하고 있는 며느리는 살아온 경제적 문화, 지적 문화 배경이 다르다. 이 사실로 보건대 의사소통은 곧 문화의 소통이며 다문화 사회 속에서 문화에 대한 이해와 언어에 대한 이해는 단순한 의사소통의 이해보다 더 중요하다.

## II. 다문화 가정 양상과 이중언어교육

다문화 사회 진입 과정에서 국제결혼 가정 자녀, 외국인 근로자 자녀들이 증가하고 있다. 이를 통한 인종적, 민족적, 문화적 다양성은 학교 공간에도 점차 반영되고 있다. 1990년대 이후 급증한 국제결혼 가정의 자녀들이 취학연령에 진입하였고 외국인 근로자 자녀들도 한국 학교에 진학하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2008년 현재 국제결혼 가정의 자녀 중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이 18,769명이고, 외국인 근로자 자녀 중 재학생은 1,402명으로 파악되고 있다. 국제결혼 가정의 재학생 18,769명의 부모의 국적<sup>2)</sup>을 살펴보면, 일본(41.0%), 중국(22.3%), 필리핀(14.3%) 등의 순이고, 외국인 근로자 가정 재학생 1,402명의 부모 국적은 몽골(26.2%), 일본(22.0%), 중국(20.3%) 등이다(부록 참고). 그러나 2006년부터는 중국, 베트남<sup>3)</sup>, 일본, 필리핀 출신인과 국제결혼을 하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어 향후 재학생들의 배경국가에도 변동이 있을 것이다.

다문화 가정에는 국제결혼 가정, 외국인 근로자 가정, 새터민 가정 등이 있다는 논의가 그동안 있었다. 이에 더하여 외국에 장기체류한 후 귀국한 가정<sup>4)</sup>, 재외동포 중 역 이민 온 가정<sup>5)</sup> 등도 다문화 가정 사례에 추

2) 한국남자와 혼인한 외국 여자가 한국여자와 혼인한 외국 남자보다 많다.

3) 사기 결혼, 남편의 구타 등 국제결혼여성의 인권문제가 대두되자 필리핀 정부에서 국제결혼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였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국제결혼 중개업소가 베트남과 캄보디아로 진출하게 된다. 동남아시아 필리핀에서 시작된 국제결혼은 베트남, 캄보디아로 이동하면서 결혼이민자의 교육 정도(학벌) 또한 낮아지게 된다.

4) 지금까지의 다문화 가정 정책연구에서 제외되었던 가정의 형태이다. 논의에서 제외되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 다문화 가정 교육 프로그램이나 행사에서도 제외되었다. 예를 들어, 귀국자녀가 전통문화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할 필요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다문화 가정 자녀가 아니라는 이유로 제외되곤 하였다. 이 문제는 정책 시행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5) 재외동포의 가정이 한국에 귀국할 경우에 그 가정의 자녀들은 한국어를 잘 구사하지 못하고 한국 문화를 낯설어한다. 이들도 다문화 가정에 포함시키고 국가의 여러 교육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국가 간의 경제 여건 변화 등으로 이민 간 사람들이 이 본국으로 귀국하는 사례가 있다. 예를 들어 일본에서도 한 때 브라질로 이민(2008년

가해야 한다. 다문화 가정의 종류에 따른 사용 언어와 언어 교육의 방향을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표 1〉 다문화 가정 양상과 언어 교육 방향

다문화 가정	다문화 가정 종류	사용 언어	언어 교육 방향
국제 결혼 가정	한국인 아버지와 외국인 어머니로 이루어진 가정→(2세 한국인)	한국어, 어머니 나라의 언어(소수 언어)→(부분) 이중언어(한국어 우세)	이중언어교육, 한국어 부진아 교육
	한국인 어머니와 외국인 아버지로 이루어진 가정→(2세 한국인)	한국어, 아버지 나라의 언어(소수언어)→(부분) 이중언어(한국어 우세)	이중언어교육, 한국어 부진아 교육
외국인 근로자 가정	외국인 근로자가 한국에 이주한 후에 이혼 가정→(2세 한국태생)	부모의 언어, 제 2언어로서의 한국어(KSL), 외국어로서의 한국어(KFL)	이중언어교육
	본국에서 결혼하여 형성된 가정이 이주한 경우→(1.5세대 본국태생)	부모의 언어, 외국어로서의 한국어(KFL)	이중언어교육
새터민 가정	북한에서 입국한 가정	북한어, 부분 교정 남한어	한국어 교정, 방언 허용
	입국한 후 남한에서 형성된 가정	북한어, 남한어	한국어 부분 교정, 방언 허용
재외동포 및 장기 외국 체류 귀국 가정	입국 제외 동포 가정, 재외 동포 중 국제결혼 가정 등	부분 한국어, 외국 체류지 언어 등 다양	한국어 보완, 외국어 유지
	장기 외국 유학 가정	한국어, 외국 체류지 언어 등	한국어 보완, 외국어 유지

## 1. 모어와 계승어

캐나다 통계청에 따르면, 모어는 “개개인이 어렸을 때 가정에서 배운

---

현재 브라질 이민 100주년) 간 사람들이 일본 경제가 좋아지자 다시 본국으로 귀국하여 마을을 형성하며 살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남해군(경남 남해군 삼동면 물건리)에 ‘독일인 마을’이 형성되어 있다.

첫 언어로 통계조사를 하는 시점에서도 이해하는 언어(박정은, 2007 : 38)”라고 정의하고 있다. 태어나자마자 두 가지의 언어를 동시에 접하는 국제결혼 가정 자녀에게 모어는 두 가지가 될 수 있다. 아이가 엄마의 A언어와는 달리 아빠로부터 B언어를 익혔다고 해서 이를 부어(父語)라고 하지 않고, 가정에서 익힌 언어이므로 B언어도 모어라고 부른다. 우리나라의 다문화 가정 형태 중 다수는 국제결혼으로 발생하였다. 이 점에서 우리나라 다문화 가정은 이민자로 구성된 외국의 다문화 가정 사례와는 차이가 있다. 그러므로 외국의 언어 정책을 고려하되, 한국의 실정에 맞게 보완 개발해야 한다. 반면에 외국인 근로자 자녀의 경우는 보통 부모 나라의 언어가 모어가 되고 한국어가 제2언어가 된다. 외국인 근로자 가정에서 두 가지 이상의 언어를 동시에 익히고 있는 경우를 생각하면 모어는 가족어이기도 하다. 모어를 사회적인 입장에서는 영어로 heritage language(계승어)라고 한다. 다문화 가정 자녀가 모어를 교육받지 못하여 이를 사장시킨다면 부모에게 물려 받은 언어가 계승어가 되지 못한다. 국제결혼 가정의 자녀에게 부모 중 어느 한 쪽의 언어가 모어가 되느냐 계승어가 되느냐, 이민은 어머니 아빠의 언어가 모어가 되고 계승어가 되느냐의 문제는 부모의 선택에 달려있다. 반면에 이를 유지시켜 줄 사회적 제도 차원, 교육적 제도 차원의 논의는 국가의 선택에 달려있다.

## 2. 이중언어교육의 이론적 배경과 정의

이중언어교육의 이론적 배경은 이중언어교육이 많이 연구된 미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볼 수 있다. 초기의 이중언어교육은 두 방향을 띠고 있다. 하나는 이민 온 소수민족들의 보호를 위해 그들에게 새로운 말을 가르쳐 언어의 통일을 꾀하려 했던 것이며, 또 다른 하나는 소수의 국가 엘리트들의 물리적, 정치적 권력의 유지와 재창출을 목적으로 실시되었던 것이다.

소수민족들을 위한 본격적인 이중언어교육은 미국에서 처음 실시되었다. 1968년 미국의 상하의회에서 통과한 ‘이중언어교육법’이 미국의 초·

중등학교에서 시행되면서부터이다. 이 법안은 첫째, 학생들의 중도 탈락을 막기 위한 새로운 노력과 학습지진아를 위한 새로운 프로그램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만들어졌고 시골 벽지 어린이들을 돕기 위한 법이다. 둘째, 이 법안은 모어가 영어가 아닌 어린이들을 위한 이중언어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이 법안의 목적은 미국에 살고 있는 모든 어린이들이 최대한 그들의 꿈을 실현하고 재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좀더 나은 여건을 만들어 주는 데 있다.

소수민족들을 위한 이중언어교육의 실시는 Bereiter & Englemann(1966)과 Jensen(1969) 같은 교육 심리학자의 이론에 근거하고 있다. 그들은 ‘언어 결함론(deficit theory)’에 근거를 둔 단일 언어교육의 교육적 실패에 대한 대안으로 ‘언어 상이론(different theory)’을 논의하였다. 언어 결함론이란 글자 그대로 어떤 언어는 우월하고 어떤 언어는 결함이 있다고 주장하는 이론이다. 반면에 언어 상이론은 우월한 언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각기 언어가 다를 뿐이라고 주장하는 이론이다.

초창기에 소수민족 어린이들에게 소위 ‘용광로’로 비유되는 ‘동화정책’에 입각한 표준 영어 교육을 하였다. 그리하여 막대한 예산을 들어 영어 특별교육까지 시키게 되었으나 수십 년 동안 실시해 온 단일 언어 교육의 결과가 실패로 나타났다. 소수민족 어린이들이 상당수 학교를 중퇴하고, 사회에 나가 문제아가 되었다. 개개 학생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의 부모로부터 배운 모어가 학교생활의 출발에서부터 거부당한 셈이기 때문에 학교생활에서 위축되고 공부에 흥미를 잃고, 결과적으로 학업성적이 떨어지고 학업을 중단하게 되었다.

언어결함론에 바탕을 둔 언어교육에 반기를 들고 일어난 이론이 ‘언어 상이론’이고 이에 입각하여 제안된 것이 이중언어교육이다. 영어 하나로만 교육하는 것에 대한 한계를 깨닫고, 소수민족의 언어를 사용하여 영어를 가르치거나 소수민족의 언어와 영어를 동시에 가르치는 이중언어교육이 이루어졌다.

간단하게 논의한다면, 이중언어교육은(bilingual education) 학습자로 하여금 두 개 이상의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교육을 말한다.



‘이중언어’는 복수개념으로 두 개만을 뜻한다기보다는 ‘두 개 이상’을 뜻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중언어교육을 두 개의 언어로 한정한다고 해도 두 가지의 개념이 내포되어 있다. 하나는 ‘두 개의 언어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을 말하고, 다른 하나는 목적은 같지만 방법적인 면에서 ‘두 개의 언어를 통한 교육’이란 뜻도 내포하고 있다. 즉 이중언어를 가르치는 교육이나, 이중언어로 가르치는 교육이나의 구분이다.

이중언어교육은 필요한 것인가? 평등 교육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는 유네스코 헌장을 살펴보면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다. 유네스코 헌장 서문에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이 헌장의 당사국 정부는 그 국민을 대신하여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전쟁은 인간의 마음 속에서 생기는 것이므로 평화의 방벽을 세워야 할 곳도 인간의 마음 속이다. 서로의 풍습과 생활에 대한 무지는 인류 역사를 통하여 세계 국민들 사이에 의혹과 불신을 초래한 공통적인 원인이며, 이 의혹과 불신 때문에 그들의 불일치가 너무나 자주 전쟁을 일으켰다. (중략) 문화의 광범한 보급과, 정의·자유·평화를 위한 인류 교육은 인간의 존엄에 불가결한 것이며 또한 모든 국민이 상호원조와 상호관심의 정신으로써 완수해야 할 신성한 의무이다. 정부의 정치적·경제적 조정에만 기초를 둔 평화는 세계 국민들의 일치되고 영속적이고 성실한 지지를 확보할 수 있는 평화가 아니다. 따라서 평화를 잃지 않기 위해서는 인류의 지적·도덕적 연대 위에 평화를 건설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러한 이유에서 이 헌장의 당사국은 교육의 기회가 모든 사람에게 충분하고 평등하게 주어지고 객관적 진리가 구속받지 않고 탐구되며 사상과 지식이 자유로이 교환되어야 함을 확신하면서, 국민들 사이의 소통수단을 발전시키고 증가시키는 동시에,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의 생활을 더욱 진실하고 더욱 완전하게 알기 위하여 이 소통수단을 사용할 것을 동의하고 결의한다. 그 결과 당사국은 국민들의 교육·과학·문화상의 관계를 통하여, 국제연합의 설립 목적이며 또한 그 헌장이 선언하고 있는 국제평화와 인류공동의 복리라는 목적을 촉진하기 위하여 여기에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유네스코)를 창설한다.<sup>6)</sup>

6) 2008년 11월 현재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홈페이지(<http://www.unesco.or.kr/front/main/>) 자료센터 참고

## 유네스코 헌장 제1조에는

### 제 1 조 (목적과 임무)

1. 이 기구의 목적은 국제연합헌장이 세계의 제 인민에 대하여 인종, 성, 언어 또는 종교의 차별없이 확인하고 있는 정의, 법의 지배 및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대한 보편적인 존중을 조장하기 위하여 교육, 과학 및 문화를 통하여 제 국민 간의 협력을 촉진함으로써 평화와 안전에 공헌하는 것이다.

유네스코 서문과 헌장 1조의 내용을 통해 볼 때, 서로 다른 풍습과 생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며 교육은 모든 국민이 협력해야 할 의무이다. 교육을 통해 국민들 사이의 소통 수단을 발전시키고 증가시키며,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완전하게 알기 위해 교육이 필요하다. 또한 ‘누구나 언어의 차별 없이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추론할 수 있다.

## 3. 이중언어교육의 목표

외국에서 수행되는 이중언어교육의 특성이나 원리, 목표에서 많은 공통점이 발견된다. 이중언어교육의 보편적인 목표는 대체로 다음과 같다.

- (가) 소수, 다수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을 위한 이중언어주의
- (나) 두 개의 언어에 대한 동일한 유창성과 정확성을 가지고 그들이 의도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동일한 언어 수행을 할 수 있는 이중언어능력
- (다) 모든 과목에서 더 나은 교육

교육을 실시하는 데 있어, 교육 목표, 내용, 방법, 평가는 매우 깊은 관련이 있다. 따라서 목표의 설정은 교육의 전반적인 방향을 제시한다. 그러므로 목표를 설정하는데 있어 현재의 문제점을 통하여 현재 상황에 적합한 목표를 재설정하고자 한다. 다문화 가정 자녀의 높은 학업 수행과 자

아 정체감 형성이 시급한 문제이다. 또한 다문화에 대한 이해를 통해 사회적 화합이 시급한 문제이다. 그러므로 이중언어교육을 통하여 학업 성취 능력 향상, 자아 정체성 확립, 소수와 다수의 다름을 인정하고 이해함으로써 사회적 화합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다음과 같이 이중언어교육의 목표를 설정하고자 한다.

- (가) 이중언어교육을 통하여 학업 성취 능력의 향상을 도모한다.
- (나) 소수와 다수의 다름을 이해하고 인정한다.
- (다) 이중언어교육을 통해 자아 정체성을 확립한다.

#### 4. 이중언어교육의 현황

##### (1) 제도적 측면

제도적으로 다문화 가정의 언어를 인정하고, 다언어 사용을 보장한다는 것은 그들을 배려하고 인정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유네스코(UNESCO)에서도 매년 2월 21일을 ‘국제 모국어 날’로 지정하여 모국어 사용을 장려하며 모국의 문화를 소중히 여기도록 하고 있다.

EU에서는 ‘모국어+2’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회원국으로 하여금 가능한 조기에 모국어 이외의 2개 언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할 것을 장려하고 있다. 이는 유럽의 시민들이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서로 간에 의사교환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모국어 외의 2개 외국어로 대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이다. 언어 소통의 어려움을 해소해서 경제 공동체 EU의 경제적인 효율성을 높이하고자 하는 의도이다.

미국에서는 1964년 인권법 개정을 계기로 소수 민족과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존중의 일환으로 1968년 이중언어교육법과 1974년 교육기회 균등법이 제정되었다. 그 후 이중언어교육이 법적 보호를 받게 되었다. 1970년대 카터 행정부에서는 외국어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미국 고등학교에서 외국어 교육이 활기를 띠게 된다. 이로 인해 기존 외국어 과목이

확대되고 새로운 외국어 과목이 신설되었다. 외국어 학습시설에 대한 개선, 교재 개발, 외국어 습득을 위한 교수법 연구 등이 활발히 진행되기 시작하였다. 이때 한국어도 아시아권 언어로 일본어와 중국어의 뒤를 이어 외국어 과목으로 채택되었다(손호민, 1990; 이선근, 2007).

미국정부에서는 21세기에 대비한 초등학교(유치원 1년 포함)와 중, 고등학교의 외국어 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1993년부터 1996까지 미국에서 가장 강력한 네 개의 외국어교육협회에 의뢰하여 초·중·고등학교의 외국어교육 목표와 교육내용의 기준을 개발하였다(손호민, 1990). 외국어 교육과정의 다섯 가지 목표를 5C로 규정한 것은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다. 의사전달(Communication), 문화터득(Cultures), 다른 학과목과의 연계(Connections), 비교(Comparisons), 다문화 사회에의 참여(Communities)가 그것이다.

## (2) 이중언어교육 방법

이중언어교육 방법의 분류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Dicker(1992; 백종학, 심진영, 1993 재인용)가 보고한 미국의 다섯 가지 이중언어교육의 방법을 살펴볼 수 있다.

### (가) 전환성 이중언어교육(transitional bilingual education)

소수 언어계 아동들을 위해 고안된 방법으로 학습자가 이미 알고 있는 언어를 도구로 영어를 가르치되 일단 영어를 습득하고 나면 학습자의 기존 언어는 버려야 한다. 이민자들을 가능하면 빨리 미국의 주류 사회에 흡수시키고자 하는 정책 입안자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교육 방법이다.

### (나) 유지성 이중언어교육(maintenance bilingual education)

이 역시 소수 언어계 아동을 위해 고안된 방법이다. 전환성 이중언어교육과 다른 점은 모국어를 유지하면서 영어를 습득하도록 하는 데 목적을 둔다는 점이다. 이중언어 사용에 따른 인지 발달과 자기 민족에의 자부심 확산 등 이로온 점이 있으나 보통 등한시되고 있다.

### (다) 캐나다식 영어, 불어 이중언어교육(the French Canadian immersion mode)

다수 언어계 아동들이 제2언어를 습득하는 데 유용하게 고안된 방법

으로 미국 내 몇몇 학교에서 모방 실시되고 있다. 모든 언어학습은 제2언어로 이루어지며, 영어와 불어의 읽고 쓰는 능력을 같은 수준으로 향상시키는 데 목적을 둔다.

(라) 병행성 이중언어교육

소수 언어계 아동과 다수 언어계 아동을 한 자리에 섞어 놓고 두 언어를 함께 학습 수단으로 쓰는 방법이다. 아동들은 상호 관계에서 효과적으로 이중언어를 구사하게 된다. 현재는 실험적 단계이지만 아주 유망한 방법이다. 양측 아동들의 부모가 상대방에 대해 편견을 가지지 않아야 가능한 교육 방법이다.

(마) 외국어 교육

유년시절부터 외국어에 노출시키는 교육이다. 제2언어의 습득이 개인 차원에서는 사회생활 및 직업 활동에 유리하고 국가 차원에서는 다른 나라와의 정치 경제적 관계를 향상시킨다고 믿고 시행하는 교육 방법이다. 그러나 소수 민족 언어는 외국어 학습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이상 열거한 다섯 가지 방법 중 미국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행하고 있는 것은 전환성 이중언어교육이다.

### (3) 이중언어교육 수용의 긍정적 입장

영어가 세계무대에서 주요 언어로 쓰이고 있는 것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도 많다. 신창용(2006)에서는 영어가 링구아 프랑카로 군림하는 것은 언어적 다양성을 좌초시키는 획일화된 언어 제국주의를 낳고 국제 사회의 고른 발전에 불균형을 초래한다고 비판하고 있다. 언어는 의사소통의 도구뿐만 아니라 가치를 표현하고 사고를 규정하는 도구이기도 하다. 영어가 세계 사회의 링구아 프랑카로 군림하는 것은 영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을 은연중에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다원주의 사회의 실현을 위해서 소수 언어를 인정하고 세계 무대에서 고루 쓰이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모든 학자가 이에 동의하는 것은 아니다. 소수민족 언어에 노출될수록

주류사회의 언어를 배우는 것이 늦어지거나 소수언어를 유지하려는 경향이 드러나면서 주류사회의 적응을 느리게 할 수 있어 부작용이 있다는 주장을 하기도 한다. 또한 국가 존립 차원에서 단일언어교육을 하여 통합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고 논의하고 있다(May, 2005). 이 문제는 우리 사회에서 최근 논쟁이 되었던 영어 조기 교육 문제와도 연관이 있다. 한국어를 능숙하게 하지 못한 상태에서 영어조기 교육을 하면 언어의 혼란을 가져와서 한국어를 배우는데 어렵다고 주장하는 사람들과도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논의는 한두 차례의 논쟁으로 끝날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sup>7)</sup>

이중언어교육이 전적으로 긍정적이고, 단일언어교육이 전적으로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어느 것이나 양면이 있기 마련이다. 그러나 단일언어교육을 주창하는 사람들은 이중언어교육의 파급효과를 간과한 것이다. 이중언어교육 수용에 대한 긍정적 입장은 이중언어교육의 필요성으로 확고해진다.

### ① 엄마의 언어로 육아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엄마의 언어는 모유와 같은 것이다. 양육을 하는 엄마는 자신에게 가장 자신 있고 언어적 경험이 풍부한 언어로 육아를 할 권리가 있다(박정은, 2007 : 84). 외국인 엄마들이 한국에서 육아를 할 때에 사용하는 언어는 한국어 교육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이다. 엄마의 철학(사고 방식)에는 온갖 문화요소가 배어 있다. 엄마에게 가장 자신 있는 언어로 아이를 교육할 때에도 충분하지 못하다고 느낄 때가 많은데 결혼이민자인 외국인 엄마가 언어적 경험이 부족한 현지어인 한국어로 충분히 만족스러운 교육을 할 거라고 기대하기 어렵다. 예를 들어 한국어를 제2언어로 사용하여 한국어에 능숙하지 못한 엄마와 한국어를 모어로 사용하는 엄마의 아이 양육을 비교해 보자. 아이를 데리고 공원을 지나가다가 “빨간 꽃이 있네. 이게 빨간 꽃이야.”라고 얘기해 주는 엄마와 “빨간 꽃이 있네. 이게 장미라는 꽃이야”라고 얘기해 주는 엄마가 사용한 간단한 문장에서도 어휘 면에

7) 이중언어교육이 장기적인 안목으로 바라본 동화주의 정책이라는 견해도 있다.

서 차이가 있다. 어떤 표현을 듣고 자라느냐의 문제는 아이의 사고의 폭에 큰 영향을 준다. 이상한 나라 앨리스에 나오는 장미 이야기, 장미 축제 이야기,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꽃 이야기 등을 얘기해 주는 엄마와 한국어 능력이 부족하여 빨간 꽃이라는 표현 외에 세부적인 이야기를 전해주지 못하는 엄마를 둔 아이의 교육 정도는 어렸을 때부터 차이가 나게 마련이다.

특히 감정 표현이나 추상적인 것에 대한 표현은 한국어가 능숙하지 않는 부모에게는 더욱 어려운 문제이다. 아동기에 정의적 영역에 대한 감각을 키워줘야 한다는 교육학적 이론에 근거하여 볼 때 한국어에 능숙하지 않는 표현상의 어려움은 아이들의 감성지수를 키워주는 어려움과도 직결된다.

## ② 모어는 자녀와 문화적 공감대를 형성하게 해 준다.

엄마의 언어를 알아야 아이가 커서라도 엄마 가족과 소통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 가족 구성원의 한 사람임을 알게 하는 것이 바로 엄마의 언어, 모어일 것이다. 국제결혼을 해서 남편의 나라에 살고 있고 자녀들이 엄마의 언어를 습득하지 못한다면 국제결혼 이민자는 딸 그대로 출가외인(出嫁外人)이 되어버린다. 다문화 가정의 자녀 역시 엄마 가족과는 소통이 단절되는 것이다.

결혼이민자인 여성이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남편이나 시댁가족의 강압적인 결정으로 익숙하지 않은 한국어로 아이를 키운다면 한정된 한국어로 아이를 키울 수밖에 없다. 시댁 가족들은 결혼이민자 여성이 한국어를 더 잘 해야 한다고 종용할 뿐 그들의 언어와 문화는 결코 인정하려 하지 않는다. 그러나 언어는 문화적인 공감을 추구하게 하는 것이고, 깊이 있는 양질의 의사소통을 하게 하는 것이다. 양육을 담당하는 엄마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편하게 표현할 수 있고 가장 자신있게 구사할 수 있는 언어가 아이에게 질적인 언어이다. 장차 커서 아이가 취직을 하는 데 도움이 되는 언어를 질적인 언어라고 하지 않는다. 엄마와 깊은 소통 관계를 맺은 아이는 엄마로부터 언어에 대한 절대적인 감각을 충분히 익혔기 때문에 한국어를 제대로 구사하지 못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한국어를 유

창하게 습득할 수 있다.

③ 모어는 자녀의 지능 발달, 학습능력 발달에 영향을 준다.

이주가정에서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현지어로 사용언어를 바꾼 경우, 부모의 현지어 실력이 모어와 같은 정도로 높지 않으면, 오히려 아이들의 지능 발달과 학습능력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다(박정은, 2007 : 97). “어른이 아이와 어느 정도 대화를 나누는가?”, “아이가 말을 꺼낸 화제에 대해 어른이 어느 정도 발전시켜서 이야기할 수 있는가?”하는 것이 아이의 학습능력 발달에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한다. 인지능력과 학습능력은 두 언어 간의 전이, 즉 두 언어는 상호관계가 있으므로 가정에서 충분한 대화가 이루어진다면 언어는 꼭 현지어가 아니어도 상관없다. 이중언어 관점에서 본다면 엄마의 현지어 구사능력에 관계없이 아이와 의사소통을 할 때에 자신에게 가장 자신 있는 언어, 모어를 사용하는 것이 아이를 위해서도 가치 있는 일이다.

④ 이중언어는 중요한 자원으로 사회에 공헌할 수 있다.

이미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언어를 하나의 자원으로 보고 각 지역의 소수집단의 언어를 지키고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기초연구도 세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미국의 경우, 주목할 것은 계승어(heratage language)교육에 대한 강화로 경제적 부담이 큰 것이 아니라, 영어 단일언어주의에 의해 생기는 경제적 부담이 더 크다는 사실이다. 외국어교육을 위해 교시를 채용하고 수업시간을 확보하고 교육예산의 일부를 할애해도 교육을 받은 학생들의 외국어 유창성과 정확성은 가정에서 배운 아이들과 비교했을 때 떨어진다(박정은, 2007 : 106). 국제결혼 가정과 외국인 근로자 자녀들의 모어교육에 신경을 써서 그들을 이중언어 구사자로 키워야 한다.



## 5. 이중언어교육에 대한 결혼이민자 의식 조사

결혼이민자 29명을 상대로 이중언어교육에 대한 의식이 어떠한지 설문조사를 하였다. 서면과 대면 설문조사를 병행하였으며, 한국어로 답하기 어려워하는 필리핀인은 영어로 답하는 것을 허용하였다. 그 중 응답내용이 부실한 경우를 제외하고 27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설문 대상은 전주교대에서 실시하고 있는 한국어 수업 및 외국인 강사 양성 과정에 참여한 결혼이민자이다. 캄보디아인, 일본인, 중국인, 필리핀인을 상대로 한 설문이었으며, 각 나라별 인원 비율은 조정하지 않았다.

최종 분석 대상에 포함된 결혼이민자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표 2〉 조사대상 결혼이민자 정보(단위 : 명, %)

국적	중국	11(40.7)	한국체류 기간	1년 미만	1(3.7)	
	필리핀	8(29.6)		1~2년 미만	5(18.5)	
	일본	7(25.9)		2~4년 미만	4(14.8)	
	캄보디아	1(3.7)		4~6년 미만	6(22.2)	
				6~8년 미만	0(0.0)	
연령	21~25세	1(3.7)		결혼 전 한국어 학습	8~10년 미만	5(18.5)
	26~30세	8(29.6)			10~12년 미만	3(11.1)
	31~35세	6(22.2)			12년 이상	3(11.1)
	36~40세	7(25.9)	있음(조선족)		3(11.1)	
			약간 있음		11(40.7)	
	41세 이상	5(18.5)	없음		13(48.1)	

\*결측치를 제외한 수치로 배경 변인별 총계가 일치하지 않음

설문 문항은 연구자의 문제의식을 반영하여 구성하였다. 설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조사 영역	조사항목	문항수
배경 정보	이름, 국적, 나이, 한국 체류기간	4
한국어 학습에 대한 정보	결혼 전 한국어 학습 입국 후 한국어 학습 한국어 학습에 대한 가족의 협조 가족과의 한국어 의사소통 어려움	4
자녀와의 의사소통 문제	자녀의 나이 자녀와의 의사소통 방식 자녀와의 한국어 의사소통 어려움	3
이중언어교육에 대한 태도	자녀와 모어로 의사소통 할 의사 모어를 가르칠 의사 모어의 사용 여부	3

설문조사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sup>8)</sup>

#### 캄보디아인

프O 잔O니, 29세, 2년 6개월 체류, 결혼 전 한국어 배운 적 없음

1. 일주일에 2시간씩 여성의 전화, 군산건강지원센터에서 한국어 2년간 공부함.
2. 아이와 한국말로 이야기합니다. 가능하면 영어이나 우리나라말로 이야기합니다(→가능하면 영어나 캄보디아어로 이야기합니다).<sup>9)</sup>
3. 집에서 가족들이 저에게 매일같이 한국어 이야기하고 제가 몰라 단어를(→모르는 단어의 뜻을) 알려 줄 수 있도록(→알려줍니다) 그대(→그때) 제가 아마도 한국어하고 한국말을 잘 할 수 있어요(※한글, 한국어, 한국말이라는 용어를 구별하지 못함).
4. 모어로 대화하고 모어를 가르칠 생각이 있다.

8) 아래 내용은 본국적, 이름, 나이, 한국 체류기간, 결혼 전 한국어 학습 정도를 나타낸다. 설문 내용에서 숫자가 같으면 동일 계열 물음에 대한 반응이다. 예를 들면, 1. 입국 후 한국어 학습 정도 2. 자녀의 나이, 자녀와의 의사소통 상황 3. 한국어 학습에 대한 가족의 협조 4. 자녀와 모어로 의사소통 할 의사 5. 모어를 가르칠 의사 6. 자녀와의 한국어 의사소통 어려움 7. 가족과의 한국어 의사소통 어려움 8. 모어의 사용 여부 등이다. 개별 설문 대상자의 특징을 일관성 있게 파악하기 위해 설문 결과를 인물 중심으로 기술하였다.

9) → 이하는 연구자가 문맥에 맞게 수정한 것이다. ※이하는 연구자의 이론적 메모이다.

6. 아이와 한국어로 말할 때 어려운 점은 한국어 발음 부분이다.
7. 한국 가족과 한국어 말할 때 어려운 점은 한국어 발음 부분과 문법 부분이다.
8. 한국어 공부할 때 캄보디아 친구 만나 일주일 1시간정도 모어를 사용한다. 통화할 때, 캄보디아 친구 만날 때 모어 사용함.

#### 필리핀인

도○ 카오토로, 33세, 8년 6개월 체류, 결혼 전 하루에 2시간씩 40일간 한국어 배움

1. 교육기관에서 일주일에 2시간씩 5개월간 한국어 공부함. 그리고 말마다(→날마다) 30분씩 스스로 공부함.
2. 8살, 6살 아이와 한국어와 영어를 주로(많이) 사용하여 말하고, 타갈로그어는 조금 사용하여 이야기함.
3. 한국어를 배우는 데 8살 딸아이가 도와줌.
4. 영어와 타갈로그어(모어)를 아들과 딸에게 가르치고 싶다. 왜냐하면 언어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5. 영어와 타갈로그어, 한국어를 다 가르치고 싶다.
6. 우리 딸이 단어의 뜻을 물어볼 때 어렵다. 그래서 내가 모르는 단어일 경우에는 그 뜻을 사전에서 함께 찾아본다.
7. 가족과 한국어 말할 때 발음이 어렵다.
8. 일주일에 한번(→한번) 1시간씩 고국 친구와 영어, 타갈로그어로 대화를 한다.

※한국어를 말할 때 발음이 어렵다고 답하였고, 실제 ‘한번’을 ‘한본’으로 표기할 정도로 발음 구별이 미흡한 편이다.

#### 필리핀인

제○스 비○테, 23세, 1년 3개월 체류, 결혼 전 한국어 배운 적 없음

1. 한국에 와서 1년간 한국어 배움.
2. 1살 아이와는 한국어, 영어로 이야기 한다.
3. 가족들은 한국 문화를 나에게 가르쳐준다. 경제적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나를 소외시키지만, 다른 일은 약간 도와준다.
4. 남편과 친척들이 한국어를 말하기 때문에 나는 아이에게 영어로 말하고, 영어를 가르칠 것이다.
5. 영어가 매우 중요하니까 영어를 가르칠 것이다. 시어머니, 시아버지, 시할머니 등과 같이 사니까 우리 아이가 한국어를 배우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

6. 아이가 어려서 아직 문제없다.
7. 남편이 나와 조카에게 한국어를 가르쳐준다.
8. 날마다는 아니지만 5시간 정도 고국 친구를 만난다. 필리핀어(타갈로그어)와 한국어로 이야기한다.

#### 필리핀인

제○ 김, 29세, 4년 5개월 체류, 결혼 전 한국어 배운 적 없음

1. 처음에는 남편이 한국어 가르쳐주고 때때로 스스로 공부함. 2달 정도 교육기관에서 배움. 한국어를 더 잘 하기 위해 계속적으로 배우고 있다. 좀 힘들기는 하지만, 이 교육기관과 같은 곳에서 공부하는 것이 한국어 배우는 데 도움이 된다. 수업이 재미있다. 선생님들이 잘 가르치고, 친절하다.
  2. 4년 9개월 된 딸과 2년 된 딸과 한국어와 영어로 이야기 한다.
  3. 내가 어려워하는 한국어가 있을 때 남편이 영어를 약간 사용하여 알려주거나 신체언어를 사용하여 알려주기도 한다. 또 전자 사전을 사용하여 알려주기도 한다.
  4. 아이와 의사소통하기 위해 가르칠 언어는 한국어이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한국어 실력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때때로 타갈로그어를 사용한다.
  5. 아이들이 필리핀에 갈 것을 대비하여 아이들에게 나의 모국어인 타갈로그어를 가르치고 싶다. 그래야 나의 친정 가족과 타갈로그어로 이야기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영어도 매우 잘 가르치고 싶다. 영어는 세계적인 언어이기 때문에 어디에서나 소통이 될 수 있는 언어이다.
  6. 아이와 한국어를 말할 때 발음과 문법 면에서 어렵다. 한국어로 말하기 어렵다고 느낄 때 영어나 타갈로그어로 말한다. 특히 화가 났을 때는 영어나 타갈로그어로 말한다.
  7. 문장 만드는 것과 발음이 어렵다.
  8. 고국 친구와 많은 시간을 보낸다. 그리고 외국인 특히 필리핀 사람들을 찾고 그들을 돕기 위해 많은 활동을 한다. 영어로 대화를 한다. 단지 자유를 위해 이 일을 한다.
- ※ 대부분의 결혼이민자들은 고국 친구와 본국의 말을 사용하면서 스트레스를 해소하기도 한다. 또한 그들은 한국어 능력 부족으로 스트레스를 겪는다.

### 필리핀인

엘○라지 아○리아노, 40세, 9년 체류, 결혼 전 한국어 배운 적 없음

1. 한국에 오기 전에는 텔레비전에서 한국어를 들어보기는 했다. 한국에 와서 한국어를 배웠으며, 지금도 주변의 사람들과 아들로부터 한국어를 배우고 있다.
2. 8살 된 아들과는 영어와 한국어 둘다를 사용하여 이야기한다.
3. 남편은 천천히 말해주려고 노력하고 때때로 몸짓을 사용하여 말해주려고 한다.
4. 나는 영어를 완벽하게 말한다. 그래서 영어와 한국어, 타갈로그어를 우리 아들이 배웠으면 좋겠다. 나는 아들에게 이것들을 가르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5. 아이가 영어와 한국어를 잘 말할 수 있기 때문에 타갈로그어와 중국어를 배우게 하고 싶다.
6. 아이와 한국어를 말할 때 발음과 문법 면에서 어렵고 특히 존댓말을 알려주기가 어렵다.
7. 어휘와 발음이 어렵다.
8. 일주일에 2~3시간 정도 고국 친구와 만난다. 간혹 1시간 정도 만날 때도 있다.

### 필리핀인

로○나, 33세, 5년 체류, 결혼 전 한국어 배운 적 없음

1. 하루에 2시간씩 이민자를 위한 교육 센터에서 1년간 한국어를 배웠다.
2. 5살 된 딸과 한국어로 말한다.
3. 가족들이 한국어 배우는데 특별히 도와주는 것 없다.
4. 우리 아이가 한국어와 영어를 동시에 잘 말할 수 있기를 원한다.
5. 우리 딸이 영어를 유창하게 말하도록 가르치고 싶다.
6. 가끔씩 아이가 한국어로 말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다. 딸에게 내가 영어로 말할 때 더 편안함을 느낀다. 특히 사랑, 칭찬, 화난 것을 표현할 때는 영어로 한다.
7. 가족들이 어려운 어휘를 사용하거나 빠르게 이야기 할 때 한국말을 못 알아들을 때가 있다.
8. 고국 친구를 만날 때는 영어와 타갈로그어를 사용하여 이야기 한다.

필리핀인

수오 씨오로 마오에, 28세, 4년 체류, 결혼 전 한국어 배운 적 없음

1. 결혼해서 2년 동안에는 집에만 있었다. 2년이 지나자 남편이 마침내 내가 한국어를 배울 수 있도록 공공기관에 나가는 것을 허락해 주었다. 무료로 한국어를 배운지 2년이 되었다. 월, 수, 금요일 반에 2시간씩 한국어를 배우러 나오게 되었다.
  2. 아이는 25개월 된 딸이 있다. 딸과는 한국어와 영어로 이야기 한다.
  3. 내가 한국어를 배울 수 있도록 가족들이 경제적으로 돕고 있다.
  4. 우리 딸은 영어보다 더 빨리 한국어를 배우는 것 같다.
  5. 한국어보다 영어를 더 많이 가르치고 싶다.
  6. 단어 수준으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아직 어려움이 없다.
  7. 가족들이 사투리로 말할 때, 너무 빠르게 말할 때 한국어를 이해하기 어렵다.
  8. 날마다 1~2시간 정도 고국 친구와 모어로 얘기한다.
- ※ 결혼이민자들이 가출하는 사례가 있다 보니, 집밖에 나가는 것을 통제하는 가정도 있다. 필리핀인 공동체를 통해 정보를 얻게 되면 가출할 가능성이 커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필리핀인은 자녀에게 영어를 가르치는 것에 대한 자부심이 있다.

필리핀인

레오빅 큐 바오체즈, 35세, 4년 체류, 결혼 전 한국어 배운 적 없음

1. ○○시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에서 한국어를 3년 동안 배우고 있다. 일주일에 두 번(월요일, 수요일) 2시간씩 한국어를 배우고 있다.
2. 딸은 4살, 아들은 21개월이다.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영어를 사용하여 의사소통을 한다. 아이들은 아빠에게서 또 어린이집에서 한국어를 배운다. 아이들과 이야기 할 때는 어찌다 내가 한국어를 사용하기도 한다. 그러나 그것은 흔한 일이 아니다. 나중에는 타갈로그어를 가르칠 것이고, 아이들이 중학생이 되면 중국어 일본어를 가르칠 계획이다.
3. 제가 한국에 왔을 때 저는 한국말을 몰랐습니다. 남편이 열심히 한국어를 가르쳐주었어요.
4. 아이들과 모어로 대화할 생각이 있습니다.
5. 영어는 지금 가르치고 타갈로그어는 나중에 가르칠 생각입니다.
6. 아이와 한국어로 말할 때 사투리와 한자가 어려워요.
7. 가족과 한국어로 말할 때 사투리와 한자가 어려워요.

8. 필리핀 친구를 만날 때마다 하루에 3시간 정도 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 필리핀인

마○리나 소○, 38세, 2년 10개월 체류, 결혼 전 한국어 배운 적 없음

1. 월요일, 수요일 2시간씩 한국어 배우고 있어요.
2. 2살 된 딸과는 한국말을 사용하여 대화를 하지만 영어를 더 많이 사용하고 있다.
3. 남편은 경제적인 면에서 돕고 있다.
4. 아이와 영어로 대화할 생각 있습니다(※연구자 주 : 타갈로그어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5. 아이에게 한국어보다 영어를 더 많이 가르치고 싶다.
6. 아이와 한국어로 대화하기 어려울 때는 영어로 대화한다.
7. 가족과 한국어로 대화하는 것이 나에게는 너무 어렵다. 가족이 사투리를 사용하고, 너무 빨리 말하기 때문에 의사소통하기가 어렵다. 또 한글도 어렵다.
8. 1시간이나 2시간정도 친구와 만나서 타갈로그어로 이야기 한다.

#### 일본인

기○라 마○미, 43세, 11년 체류, 결혼 전 한국어 배운 적 없음

1. 한국에서 시간 있을 때마다 집에서 독학.
2. 아이가 없지만, 아이와 일본어, 한국어로 말할 것 같다.
5. 아이가 있다면 일본어를 가르칠 생각이 있다.
7. 말만 알고, 자세한 뜻을 모르기 때문에 오해가 생길 수 있다.
8. 일주일에 1~2시간 정도 일본 친구와 이야기 한다.

#### 일본인

노○나가 게○꼬, 30세, 8년 체류, 결혼 전 한국어 배운 적 없음

1. 이화여자대학교 어학원에서 하루 2~3시간씩 공부한 적 있음.
2. 7세 아들은 한국어를 사용하고, 일본어를 알아듣고, 일본어로 말하기도 한다.
- 5세 아들은 한국어를 사용하고, 일본어는 말하지 못한다. 하지만, 일본어와 한국어를 구별할 수 있고 그 차이를 알고 있다. 아이와는 한국어와 일본어를 사용하여 이야기 한다.
3. 한국어를 배우는 데 가족이 별 도움 주지 않는다.

4. 아이와 일본어로 대화하고 있다.
5. 아이에게 일본어(모어)를 가르칠 생각이 있다. 학교에서 일본어반 있다면 보내고 싶다.
6. 아이와 한국어 할 때 내가 맞는 단어를 사용하는지 걱정이 된다. 틀린 말을 가르치고 있지는 않나라고 염려될 때가 있다.
7. 제가(→내가) 하고 싶은 말을 제대로 전달했는지 걱정이 된다. 발음이 어렵다.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말할 때 상대방이 잘못 알아들을 때가 있다.
8. 이틀에 한번 3시간 정도 일본 친구와 일본어로 이야기 한다.

#### 일본인

이와오끼 사오미, 39세, 10년 체류, 결혼 전 가나다라 정도 한국어 조금 배움

1. 한국에 와서 집에서 하루 30분씩 한국어 배움.
2. 10세 아들과 7세 딸과 한국어로 이야기 한다. 집에서 아이들에게 받아 쓰기, 일기 쓰기를 시키고, 책 읽게 하여 한국어 지도하고 있다.
4. 아이와 일본어로 대화 할 생각 있다.
5. 아이에게 일본 문자(히라가나)를 가르치고 있다.
6. 발음이 안 좋아서 아이가 못 알아들을 때 있다. 이야기 하고 싶은 것을 정확하게 전달하지 못한다. 아이들의 나이가 많아질수록 하고 싶은 말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더 어려워진다.
7. 서로 알아듣지 못할 때 불편하다.
8. 하루 10분 정도 일본어 사용한다.

#### 일본인

나오요시 가오리, 37세, 9년 6개월 체류, 결혼 전 한국어 배운 적 없음

1. 일본어-한국어 책 사서 한국어를 혼자 집에서 공부함.
2. 9살 아들과 6살 딸이 있는데, 한국어와 일본어를 섞어 이야기 한다. 아이들의 일본어 실력은 히라가나 혼동할 수 있을 정도이다.
3. 한국어 배우는데 가족들이 특별히 도와주는 것 없다.
4. 일본어로 대화하고 있다.
5. 아이들이 지금은 히라가나만 읽을 수 있다. 3년마다 일본에 가서 말해 보게 하고 관심을 가지게 하고 있다. 국제적인 아이로 키우고 싶다.
6. 높임말 가르칠 때, 숙제를 지도할 때, 한국어로 자세히 설명해야 할 때 한국어가 어렵다. 발음이 안 좋아서 어렵다.



8. 친구와 만났을 때나 친구와 전화할 때 등 하루 1시간 정도 일본어 사용한다.

#### 일본인

하O야 다O코, 42세, 13년 체류, 결혼 전 일본어로 된 한국어 책 보고 독학

1. 결혼 전에 민단(※일본에 건너간 조선족이 만든 단체임)에 계신 한국 선생님을 찾아가서 가끔 만나고 제일 교포가 한국어 배울 때 함께 가끔씩 한국어 배움. 한국에 와서는 하루에 2시간씩 일주일에 1번 정도 4개월 동안 종교 단체에서 한국어를 배움.
2. 12살, 11살 아이와는 한국어로 이야기 한다.
3. 내가 틀린 말을 썼을 때 가족들이 고쳐준다.
4. 아이와 일본어로 대화할 생각이 있다.
5. 아이가 어렸을 때 일본어를 가르치려고 했는데, 아이가 말이 너무 느리기 때문에 시부모님께서는 제가 한국어로 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6. 제가 언어능력이 부족하여 표현하는 적당한 말이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 한국어 능력이 부족하여 적당한 말을 구사하지 못할 때가 있다).
7. 지금은 많이 편찮아졌지만 사투리를 많이 쓰실 때 알아듣기 힘듭니다.
8. 일주일에 2시간 정도 일본어를 사용한다.

#### 일본인

아O카와 미O, 42세, 15년 체류, 결혼 전 1년 정도 학원에서 한국어 배움

1. 일본어로 해석된 한국어 교재로 하루에 1~2시간 정도 독학했다.
2. 13살, 10살, 8살, 6살, 3살 아이가 5명입니다. 아이들과는 한국어로 이야기 하고 약간 일본어(인사말)를 사용하기도 함.
3. 일상생활 속에서 대화하면서 모르면 묻고 가족들이 답을 해주는 정도로 한국어를 가족에게서 배운다.
4. 아이들과 일본어로 대화를 하고 있다.
5. 가정에서도 하고, 학원, 학습지, 학교 등을 이용하여 체계적으로 일본어 교육을 시켰으면 좋겠다.
6. 제가 어휘력, 표현력 부족으로 정확한 의사표시를 하지 못하는 점이 어렵다. 아이들이 사용하는 단어를 몰라서 아이들 말을 이해하기 어려울 때 있다.
7. 못 알아들을 때 답답하고, 마음 속에 자세한 내용 등 말이 안 통할 때 답답하다.

8. 고국 친구를 만날 때나 전화통화 할 때 하루에 1~2시간 정도 일본어 사용한다.

#### 일본인

요○다 미○요, 44세, 12년 체류, 결혼 전 한국어 배운 적 없음

1. 혼자 책을 보고 배웠다. ○○대학교 한국어 프로그램에 처음 참석했다.
2. 11살, 10살 아이들과는 한국어로 이야기 한다. 화날 때도 한국어를 사용한다.
3. 가족들이 한국어 배우는 데 특별히 도와주는 것 없다.
4. 아이들에게 일본어로 대화할 생각이 있다.
5. 아이에게 일본어를 가르칠 생각이 있다.
7. 가족들의 말을 못 알아들을 때 어렵다.
8. 고국 친구와 전화할 때 또는 만날 때 일본어 사용한다.

#### 중국인

장○, 34세, 5년 체류, 결혼 전 3개월간 한국어 배움

1. 결혼하기 전에 3개월 동안 학원에서 일주일 2~3번 1시간씩 한국어 배움. 중국어 해설이 있는 한국어 기초 책과 테이프로 혼자 많이 공부했다. 한국에 와서는 생활 중에 한국어 배웠다. 2008년부터 이주여성지원 센터의 선생님이 집에 와서 가르쳐준다. 일주일에 2번 두 시간씩 와서 가르쳐준다.
2. 5살(정확하게는 45개월) 된 아이와는 한국말로 이야기 한다.
3. 가족들과 이야기 할 때 내가 틀린 말하면 그때그때 가족들이 고쳐준다.
4. 아이와 중국어로 대화할 생각이 있다.
5. 아이에게 중국어를 조금 가르치고 싶어요.
6. 아이가 어린이집 다닌다. 아이가 말하는 것 중에서 엄마인 내가 모르는 단어가 많다.
7. 가족과 한국어 말할 때 어려움 거의 없다.
8. 중국어를 사용할 때가 거의 없다. 친정에 전화할 때 조금 사용한다.

#### 중국여

오○, 32세, 1년 1개월 체류, 결혼 전 2개월동안 한국어 배움

1. 한국에 와서 아시아 학교에서 월, 수, 금요일 오후 2시간씩 한국어 배움.
2. 아이가 없다. 아이가 있다면, 중국어와 한국어로 이야기 할 거예요.

3. 한국에 처음 왔을 때 형님하고 학교에 같이 가서 한국어를 배웠다.
4. 아이가 생기면 중국어로 대화할 생각이 있다.
5. 아이가 생기면 중국어를 가르칠 생각이 있다.
6. 아직 아이가 없어서 모르겠다.
7. 사투리는 어렵다.
8. 학교에 가서 공부할 때 친구들이랑 중국어로 말한다. 친구 집에 놀러가서 중국어를 사용하기도 하고, 중국인 친구나, 엄마, 아빠와 전화 통화(2주에 1시간 정도)할 때 중국어를 사용한다.

#### 중국인

김○, 39세, 5년 체류, 결혼 전에 한국어 배움, 조선족임

1. 한국에 와서 특별히 한국어 배운 적 없음.
2. 3살 아들과는 한국어만 사용하여 이야기함.
4. 아이가 조금 크면(5살이나 6살쯤) 중국어로 대화할 생각입니다. 아직은 중국어로 대화하지 않아요.
5. 5살이나 6살쯤 중국어를 가르칠 생각입니다.
6. 아이와 한국어 할 때 어려움 없습니다.
7. 처음 2년 동안 사투리를 몰라서 언어소통이 안 될 때가 있었지만 지금은 별다른 어려움이 없습니다.
8. 매일 중국어 사용합니다.

#### 중국인

등○연, 28세, 2년 체류, 결혼 전 한국어 배운 적 없음

1. 한국에 와서 ○○대학교에서 하루 4시간씩 한 학기 배웠어요.
2. 4개월된 아이와는 한국말로 이야기 합니다.
3. 시아버지가 한국어 선생님입니다. 그래서 한국어를 가르쳐줘요.
4. 아이와 중국어로 대화할 생각이 있어요.
5. 아이에게 중국어를 가르칠 생각이 있어요.
6. 발음이 어렵다.
7. 한국의 가족과는 문화차이 때문에 어렵다.
8. 남편이 중국어를 할 수 있으니까 중국어를 사용하여 말하기도 한다. 지금은 한국말로 많이 얘기한다.

### 중국인

조○홍, 45세, 1년 6개월 체류, 결혼 전 2개월간 한국어 배움

1. 한국에 와서 ○○대학교에서 2개월간, 아시아센터에서 2개월간 한국어 배웠어요. 지금은 ○○대학교에서 취업교육 2개월간 배우고 있어요.
2. 재혼인데, 아이가 없어요.
4. 남편이 한국어 가르쳐줘요.
7. 문화 차이로 어려워요.
8. 남편이 중국어를 말할 수 있으니까 항상 모어(중국어) 사용해요.

### 중국인

왕○핑, 29세, 1년 체류, 결혼 전 2개월간 한국어 배움

1. 한국에 와서 하루에 세 시간씩 교육기관에서 한국어 배웠어요.
2. 아이가 아직 없다.
3. 이주여성센터에서 중국어를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7. 제일 어려운 것은 속에 있는 말을 표현할 수 없을 때이고, 문화차이(풍습의 차이)가 있을 때, 화날 때나 속상할 때 표현 못해서 어렵다.
8. 매일 1시간 정도 중국어로 대화를 합니다.

### 중국인

김○화, 37세, 10년 체류, 조선족이라 어려서부터 한국어 배움

1. ○○대학에서 한국어 배웠다.
2. 9세 아들과는 중국어와 한국어로 대화를 합니다. 중국어를 집에서 가르쳐주려고 하니까 안 배우려고 하였다. 영어는 학교 친구들이 하니까 배우려고 하지만, 중국어는 학교 친구들이 배우지 않으니까 우리 아들도 배우지 않으려고 하였다. 그러다가 초등학교 방과후 교실에서 중국어반이 생겨 학교에서 중국어를 배우게 되면서 중국어를 배우려는 자세가 달라졌다. 다른 애들도 배우고 있다고 인식시키는 것이 도움이 되었다. 그러나 사실 방과 후 교실 선생님의 중국어 발음은 엉망이다. 현재 집에서 아이에게 5개 병음과 21개 성모를 쓰도록 가르치고 있다.
3. 한국어는 스스로 배웠다. 가족들이 특별히 도와주지 않는다.
4. 아이와 중국어로 대화를 할 생각이 있다.
5. 아이에게 중국어를 가르칠 생각이 있다.
6. 아이와 한국어로 말할 때 어려움 없다.
7. 가족과 한국어로 말할 때 어려움 없다.

8. 중국 친구 만났을 때 매일 1시간 정도 중국어 사용한다.

#### 중국인

왕○, 27세, 4개월 체류, 결혼 전 4개월동안 한국어 배움

1. 하루에 4~5시간씩 3개월간 결혼이민자가족센터와 전주대학교에서 한국어 배움.
2. 아이가 없음. 아이가 생기면 한국말로 대화할 생각임.
4. 아이에게 중국어로 대화하고, 중국어를 가르칠 생각이다.
7. 아직 한국어 잘 못해서 가족과 소통 어려워요.
8. 한국어 배우는 학교에서 중국인과 자주 중국어로 대화합니다.

#### 중국인 조선족

이○희, 36세, 8년 체류, 초등학교 1학년때부터 한국어 배움

1. 한국에 와서 한국어를 배우지 않았다.
2. 8세 딸과 5세 딸과는 한국어로 이야기한다.
6. 영어로 된 외래어(한국어)가 어려워요.
7. 부모님과 의 존댓말, 남편과 아이들과는 영어로 된 외래어가 어렵다.
8. 중국어를 사용할 시간 별로 없다.

#### 중국인

홍○숙, 35세, 1년 1개월, 결혼 전 1개월간 한국어 배움

1. 오전에 하루 2시간씩 이틀 동안 한국어 배워요. 오후에는 집에서 혼자 2시간씩 공부해요.
2. 아이 없어요.
4. 아이와 중국어로 이야기하고 중국어를 가르칠 생각 있어요.
7. 단어 부족해요.
8. 하루 1~2시간 중국어 사용해요.

#### 중국인

허○애, 27세, 3년 10개월 체류, 결혼하기 전 2개월간 한국어 배움, 중국어학원강사로 활약

1. 주일에 2시간씩 3회 한국어를 공부한지가 1년 6개월이 되었다.
2. 3살 아이(한국 나이로 5살)와는 한국어로 주로 말하고, 중국어 말만 가르치고 있다.

3. 남편이 많이 대화를 해줌으로써 한국어를 배우로 있다. 남편이 한국 역사, 한국 사회에 대해서 많이 알려준다. 한국어 배울 때 처음에는 많이 어려워했고, 특히 높임말에 대해 남편이 설명 많이 해 줬다.
4. 아이와 모어(중국어)로 대화할 생각이고, 나중에 중국으로 유학을 보낼 생각이다. 돈 벌어서 중국에 가서 살든지, 아이가 중학교 때나 고등학교 때 중국에 보내서 친정부모가 돌보게 하고 유학을 보내고 싶다. 그 후에 중국 관련 일 하면서 한국에 와서 살았으면 좋겠다.
5. 학교에서 중국어(모어) 프로그램이 있으면 보내겠어요. 아이들이 선생님 말 잘 들으니까 보내고 싶어요. 학교 프로그램 없으면 학원이라도 보내고 싶어요. 엄마 말 안 들으니까 선생님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6. 가족과 한국어 말할 때 처음에는 어려웠어요. 그러나 지금은 어려움 없어요. 단어가 틀려서 조금 어려워요. 페스티벌, 케이크 등 외래어가 어려워요. 미원을 중국말로로는 위이수라고 해요.
7. 학원에서 가르칠 때 하루에 2시간 정도, 또 30분간 동생과 전화 통화할 때 중국말 사용해요. 친정부모와는 조선말로 해요. 조선족들은 ‘-요’ 안 붙여서 말해요. 예를 들면, ‘그게 무슨 말이야?’처럼 어른들에게도 반말 사용해요. 가끔씩 제가 존댓말 사용 안 하면 조선말 한다고 남편이 꾸중해요. 지금은 조선말과 한국어 자유자재로 구사해요.

설문 내용을 분석한 결과 결혼 전 한국어를 학습한 경험이 ‘전혀 없다’고 응답한 사람이 전체 설문자 중 48.1%이다. 한국어를 배운 적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에도 ‘가나다라’를 알 정도, 또는 1~3개월 학습하였다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다만, 조선족의 경우는 어려서부터 한국어를 배웠다고 응답하였다. 이와 같이 결혼이민자들은 한국어에 능숙하지 않은 게 일반적이다. 그러나 결혼 후 아이를 낳고 아이를 양육할 때는 그들이 한국어를 사용해서 교육하기를 바란다. 특히 가족인 남편과 시부모들이 원하고 있다. 국제결혼 가정의 자녀들은 한국에서 살 사람들이니 어려서부터 한국어에 능통해야 한다는 논리이다.

보편적으로 일본인 엄마들은 한국어를 못하여도 자녀와 한국어로 의사소통하려고 노력한다. 물론 예외적인 상황은 있다. 반면에 필리핀인은 영어를 사용하여 의사소통을 하려는 경향이 있다. 한국어를 못해도 크게

어려워하지 않는다. 필리핀인 엄마가 아이에게 영어로 의사소통을 하고, 영어를 가르치는 것에 대해 가족들도 적극적으로 지지한다. 우리 사회에서 영어를 잘 하면 이점이 크다고 인식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필리핀인이 자녀에게 타갈로그어를 가르치거나 캄보디아인이 자녀에게 캄보디아어를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는 가족들이 거부감을 느끼고 있었다. 타갈로그어나 캄보디아어는 배워야 아무 쓸모가 없다는 반응이다. 이중언어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결혼이민자가 가족을 설득하여 모어를 가르치려는 열의가 있는 경우에도 가족의 반대로 이중언어교육이 쉽지 않다고 얘기한다.

일본인과 중국인의 경우는 적극적으로 아이들에게 일본어나 중국어를 가르치기보다는 아이가 컸을 때 조금씩 가르치는 방식을 택하였다. 중국인 중 조선족은 한국어로 의사소통하는 데 어려움이 없으나 영어식 외래어나 문화의 차이에서 발생하게 되는 표현이 낯설다고 답하였다.

공히 발음과 단어 부분에서 한국어가 어렵다고 답하였고 자신의 감정이나 마음 속에 있는 말을 적절하게 표현하지 못할 때 어렵다고 답하였다. 또한 문화적 차이로 큰 어려움에 봉착한다고 답변하였다. 아이들의 나이가 많아질수록 하고 싶은 말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더 어려워진다고 하였다. 결혼이민자가 한국어를 배우는 데 가족들이 특별한 도움을 주는 경우는 흔하지 않았다. 자연스러운 언어 환경에서 한국어를 배우거나 교육기관을 통해 한국어를 배우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어를 사용하느냐는 항목에 대해서는 대부분 고국의 친구들과 만나거나 고국에 전화를 걸었을 때 모어를 사용한다고 답변하였다. 간혹 남편이 결혼이민자의 모어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 남편과 대화할 때 모어를 사용하기도 한다<sup>10)</sup>는 답변이 있었다. 결혼이민자의 모어 사용은 또 하나의 스트레스 해소법이다.

10) 하수권(2008)에서는 두 명의 서로 다른 모국어 화자가 학습자인 동시에 상대방 학습을 도와주는 교사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는 교수법으로 탠뎀(tandem) 학습법을 소개하고 있다. 국제결혼 부부의 경우 이 교수법을 활용하면 좋을 것이다. 상호교수학습법이라고 명명할 수 있다.

### III. 호주의 이중언어교육 정책

호주의 언어 정책에 대한 연구는 권순화(2006)을 들 수 있으며, 호주의 자국어교육에 대한 실태는 권순화(2001)에서 실라버스와 교과서 분석을 통하여 살펴볼 수 있다. 호주의 한국어 교육은 서혁(2004)에서 정책 차원에서 살펴볼 수 있다. 호주의 사회과 수업을 통하여 교실 수업 활동을 관찰하고 있는 조영달(2004)은 일반론적인 논의이고 다문화 교육에 대한 논의는 아니다.

호주에서 이중언어교육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ESL로서의 영어교육과 소수언어보조정책에 따른 소수언어교육과 학교에서의 영어 교육, 그리고 다문화 교육정책에 따른 이중언어교육<sup>11)</sup>이 그것이다. 이를 한국에 적용해 본다면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과 소수언어교육(게송어 교육), 다문화이해를 위한 외국어교육, 국어교육 등에 적용할 수 있다.

#### 1. 호주의 영어 교육(자국어 교육) 정책

권순화(2006)에서는 호주의 언어교육 정책을 영어 교육과 이중언어교육 차원에서 심도있게 논의하고 있다. 호주의 영어 교육은 연령별로 구분을 두어 실시하고 국가에서 운영하는 지역별 교육기관과 민간에서 운영하는 지역별 교육 기관에서 이루어진다. 영어권이 아닌 곳에서 이민을 온 사람의 경우 성인과 학생으로 구분하여 국가에서 운영하는 제도화된 기관에서 영어 교육을 실시한다. 성인의 경우는 시드니 내에 각 지역별로 이민자 어학원이라는 기관에서 영어 교육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학생의 경우는 정규학교에서 교육을 받기 전에 ‘랭귀지 스쿨’이라는 어학원에서 일정기간 영어 교육을 받은 후 학교 수업에 참여할 수 있다고 판단될 경

11) 각각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권순화(2001)에서 이미 밝힌 바 있다. 본고에서는 학교에서의 영어 교육, 다문화 교육정책에 따른 이중언어교육만을 요약하여 소개하겠다.



우에 자격이 부여되고 정규학교로 이관된다. 이민자가 아니면서 호주에 체류하게 되는 외국인을 위해 우리나라 동사무소와 같은 기관인 카운슬에서 영어 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그밖에도 교회를 중심으로 외국인을 위한 영어 교실이 자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외국인을 위한 영어 교육 교재가 많이 발달되어 있어서, 강사들은 다양한 책을 복사하여 사용한다. 특히 카운슬에서 운영하는 영어교실에는, 영어를 사용하는 나라에서 이민 온 사람들도 강사로 일하고 있다. 예를 들면, 인도에서 이민 온 사람들이 일정한 자격을 갖추면 영어 강사로 일할 수 있다. 성인을 상대로 한 영어 교육의 경우는 어린 아이를 돌보는 시설과 인원을 갖추고 있다. 민간에서 운영하는 교회의 영어 교육에서도 어린 아이를 돌봐주는 제도가 잘 되어 있다. 결혼하고 육아의 부담이 있는 여성들이 영어교실에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하고 있는 것이다.

학생들이 랭귀지 스쿨을 거쳐 학교에 입학하게 되면, 학교에서 수준(레벨)별 영어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영어 교육에는 이민자나 외국인이 선택할 수 있는 3가지 수준과 영어에 능숙한 이민자나 본국인이 선택할 수 있는 3가지 수준이 있다. 영어에 능통하지 못한 이민자나 외국인은 ESL, 기본 과정, 표준 과정 중에서 선택할 수 있으며, 영어에 능통한 이민자나 본국인은 표준 과정, 고급 과정, 최고급 과정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자신의 수준이 어떠한지에 따라 스스로 선택, 지원할 수 있으며 레벨 선택에 따른 불이익은 없다. 평가도 수준별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학생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면 영어 도우미 교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영어 도우미 교사는 다른 과목의 과제수행에도 도움을 준다.

## 2. 호주의(소수 언어인) 한국어 교육 정책

호주에서는 이민자와 외국인 자녀에게 모국어에 대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소수 언어 정책을 병행하고 있다. 영어 교육 제도 못지않게 소수 민족의 언어를 보호하는 정책을 사용하여 소수 언어인 한국어 교육에도

개방적인 배려를 하고 있다.

초등학교 때부터 제2외국어를 선택하여 교육받을 수 있는 제도 아래 소수 민족의 언어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놓고 있다. 소수 언어 정책은 소수 민족만을 위한 정책이라기보다는 초등학교 때부터 전 국민이 제2외국어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통해서 다문화로 이해할 수 있는 안목을 키운다는 취지 아래 이루어진 제도이다. 소수 민족 차원에서 본다면, 이민자나 외국인 자녀에게 모국어를 알게 함으로써 부모의 언어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도움을 주고, 민족의 자긍심을 키워주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리고 언어의 문제는 궁극적으로 외교 정책, 경제 교류 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국가 차원에서는 적은 기회비용으로 큰 이득을 낼 수 있는 정책 중 하나이다. 영어와 모국어(다국어)를 함께 함으로써 다국어를 구사하는 인력을 키워 궁극적으로는 국가 경제에 도움을 줄 수 있게 하는 것이다.

#### IV. 이중언어교육 정책 제안

현재 우리나라 다문화 가정 자녀의 한국어 교육은 취학 전에 가정이나 어린이집, 유치원 등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취학 후에는 국가 교육 기관에서 담당하고 있다. 국제결혼 가정의 자녀들은 말을 배우는 가장 중요한 시기인 유아기에 한국말이 서투른 외국인 어머니의 교육 하에 성장하기 때문에 언어 발달이 늦어지고 의사소통에 제한을 받는다. 언어 능력의 부족은 취학 후 학습 부진을 초래할 수 있다. 국제결혼 가정의 어른에 대한 한국어 교육 정책이 자녀에 대한 한국어 교육 정책과 병행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러나 국제결혼이민자의 한국어 교육 강화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국제결혼이민자의 한국어 습득은 외국어 습득이기 때문에 유창성에 한계가 있게 마련이다. 그러므로 자녀의 이중언어교육이 병행되어야 한다. 어려서부터 자녀가 소수언어를 습득한다면 그 습

득 정도가 빠르고 유창할 수 있다.

외국인 근로자 자녀의 경우는 KSL차원에서 교육해야 한다. 외국인 근로자 자녀가 한국어를 취학 전에 배우지 못한 경우에는 일반 학생과 함께 학업을 수행하기 어렵다. 새터민 자녀의 경우는 조금 양상이 다르다. 북한은 러시아의 영향을 많이 받고 남한은 서유럽, 북아메리카의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교육에서 사용하는 용어도 차이가 있다. 예를 들면, 과학 용어에서도 남한은 영어식 외래어를 많이 사용하는 데 비해 북한은 러시아식 외래어를 많이 사용한다. 교과서에 소개된 외국 위인도 남한은 서유럽, 북아메리카 위주의 위인이지만 북한은 러시아, 동유럽 계통의 위인이다. 그 밖에도 귀국 자녀나 장기 외국 체류한 학생의 경우는 상황마다 차이가 있게 마련이다.

사례마다 다르겠지만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우리나라 이중언어교육의 나아갈 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다. 그동안 이론을 토대로 잠정적으로 교육 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1. KSL을 통한 이중언어교육 실시

KSL(Korean as a second language) 프로그램을 통하여 정규 학교에 입학하기 전 일정기간동안 한국의 학교 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한국어를 습득하여 학교 입학 적응을 도모하여야 한다.

학교 밖에 KSL 기관을 마련하는 문제와 학교 내에 KSL기관을 두는 방안이 있다. 학교 내에 KSL반을 운영하는 형식에서는 음악, 미술, 체육 등 예술 활동 위주의 수업에는 일반 학생과 함께 수업을 듣고, 국어, 수학, 사회, 과학 등의 언어 활동이 비중을 차지하는 과목은 수준에 맞는 KSL 과정으로 수업을 듣게 한다. 그러다가 점차적으로 KSL 시간 수를 줄여가면서 일반학생 반에 편입하게 한다. 이때 KSL에서 이중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선생님의 보조가 필요하다.

이중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사람을 선별하여 일정한 교직 과정을 이

수하거나 연수한 후에 학교에 투입하는 방안을 서울교대 다문화 센터에서 2009년 시행할 예정이다. 예비교사에게 KSL 지도 프로그램을 이수한 자에게는 교사 자격증에 부기하여 주는 제도 역시 권장할 만하다.

## 2. 다언어교육정책과 다언어매체정책

곽한영(2008 : 36)에서는 다문화 정책을 다문화화 정책, 다제도화 정책, 다사회화 정책, 다평등화 정책으로 나누어 소개하고 있다. 그 중에서 언어 교육정책은 다문화화 정책의 일부로 소개하고 있다. 다문화화 정책은 언어, 규범, 가치관, 종교, 이념, 생활양식, 법 등에 대한 정책을 의미하며 이중 가장 중시할 것으로 다언어교육정책과 다언어매체정책을 들고 있다. 이는 공식, 비공식 교육기관에서 주류 사회와 소수 사회에 문화교육을 제공하고 또 각 언론매체에서 다언어를 사용하도록 하는 정책이다. 주류 문화의 구성원에게는 다언어 능력을 향상시키고 타문화 이해와 타문화 간의 의사소통을 활성화하여 상호작용을 촉진시키는 데 효과적이다.

## 3. 보조 교사 활용

다문화 가정의 자녀는 학습 내용의 이해도가 부족하여 낮은 학업 성취 능력을 보인다. 이러한 현상이 심화되면 학교생활에 부적응을 경험할 수 있으므로 보조 교사를 활용하여 다문화 가정의 자녀 학습을 돕는다. 대학생 멘토링도 대학생의 봉사활동과 관련하여 시행한다. 특히 사범대나 교대를 중심으로 실시하여 임용 전에 학습자를 만나볼 수 있는 기회를 증대시킨다. 또, 외국어 관련 담당과에서 예를 들면, 베트남어나 인도네시아어를 전공하고 있는 대학생이나 졸업생을 상대로 언어교육, 문화 교육, 통역 서비스 분야의 봉사 및 멘토링을 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다.

#### 4. 다문화 이해 교육

다수 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다문화 이해 교육을 실시하도록 한다. 소수 학생의 문화가 다름을 인정하고 이해함으로써 미래 사회를 이끌어갈 주역으로서의 화합을 도모하게 한다. 제2외국어 교육을 언어차원에서 한정할 것이 아니라 상호 문화 이해 차원의 교육으로 확장하여 교육하도록 한다.

#### 5. 소수 언어 학습 기회 확대

방과후 교육, 지역 문화 센터 등을 통하여 소수 언어의 학습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다문화 가정의 자녀에게는 해당 언어를 배울 수 있는 기회와 더 나아가 문화를 학습함으로써 자아 정체감을 형성하는데 도움을 주고, 자국민에게는 소수 언어를 학습하는 기회를 제공하여 열린 사고를 촉진하도록 한다.

미국에서는 이중언어초기에 소수민 동화정책을 실시하였으나 그 결과는 실패로 드러났다. 이에 우리나라에서는 문화 우월주의에 기반한 동화정책으로 일관하기보다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이해하며 화합을 도모함으로써 진정한 내향적 국제화를 실현해야 할 것이다.

### V. 결론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다문화 가정을 위한 이중언어교육이 미흡한 형편이다. 2007년 교육인적자원 지정 다문화 교육 정책 연구학교로 지정된

‘경기미원초등학교’에서 “다문화가정 학부모와의 연계교육을 통한 이중언어 사용 활성화 방안”을 시행하였고 2008년에도 교육과학기술부 지정 연구학교인 경기미원초등학교에서 동일 연구를 시행하였다. 아직은 시행 초기 단계이다. 진정한 의미의 이중언어교육에 대한 방향 모색이 필요한 상황이다.

우리보다 앞서 이중언어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호주를 포함한 외국의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 이중언어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학문 발전뿐만 아니라 교육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먼저 학문 발전의 측면에서 볼 때 본 연구는 첫째, 국어교육 내에서 다문화 사회에 관한 학문적 논의의 활성화를 가져오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다문화 사회의 도래는 한국 사회가 직면한 심각한 도전이며, 언어 정책을 통해 그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다. 다문화 교육은 국어교육의 중요한 과제이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국어교육계에서는 다문화사회의 도래에 대비하여 언어정책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가 미미한 상황이다. 이 연구를 계기로 이 주제가 국어교육, 언어교육 내에서 폭넓게 논의될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본 연구는 다문화 사회 관련 언어교육 및 자국어 교육,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 연구를 위한 기초 자료로 이용될 수 있다. 이 연구 내용은 후속 연구자들의 언어 정책에 대한 논의, 사회언어교육 연구를 위한 의미있는 기초 자료가 될 것이다.

셋째, 본 연구는 언어교육 정책과 언어교육철학의 연구 범위를 확대시켜 줄 것이다. 본 연구는 다문화 사회에 관한 언어철학적 논의의 범위를 보다 확대시킬 것이다.

넷째, 이중언어를 보다 빠른 시기에 배우게 함으로써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언어는 단순한 의사소통의 도구가 아니라 그 언어 사용자의 삶과 혼이 담겨있는 것이다. 따라서 제도적으로 소수 민족의 언어를 인정하고, 사용을 보장하는 것은 그 민족의 삶과 혼을 인정하고 배려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미국의 이중언어교육 양상을 보면

이민자의 자녀가 대학 진학 후 모국어를 배우려는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이는 성장 과정에서 자아정체성이 형성되고 자신의 민족적 사회적 정체성을 성립하는 데 언어가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렸을 때 이중언어를 배운다면 대학 진학 후에 배우는 것보다 더 효과적이다.

다른 한편으로 교육 발전 면에서 본 연구는 첫째, 국제화 시대를 살아갈 학생들에게 국제시민으로서의 자질을 갖추도록 교육할 기초 자료를 제공할 것이다. 다민족 다문화 사회 속에서 소통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자료를 제공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의 결과는 이주자를 대상으로 하는 국가 교육 정책 결정에 참고 자료가 될 것이다. 셋째, 본 연구는 교육에서 이민자 가정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공론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

\* 본 논문은 2009. 2. 25. 투고되었으며, 2009. 3. 3. 심사가 시작되어 2009. 3. 28. 심사가 종료되었음.

# ■ 참고문헌

- 곽한영(2008), “비교 다문화정책론”, 일반교사 다문화교육 연수, 서울대학교 중앙다문화교육센터.
- 권순희(2001), “호주의 자국어 실라버스와 교과서 분석”, 『국어교육학연구』 12집, 국어교육학회.
- 권순희(2006), “다문화가정을 위한 언어 교육정책 모색—호주의 언어 교육 정책 검토를 중심으로”, 『국어교육학연구』 27집, 국어교육학회.
- 권순희(2007), “다문화가정 자녀의 상담지도 사례”, 『국어교육학연구』 제29집, 국어교육학연구.
- 김남국(2005), “다문화 시대의 시민 : 한국사회에 대한 시론”, 『국제정치논총』 45 (4), 한국국제정치학회.
- 김미숙(2005), 북한이탈학생의 학교적응 실태 및 지원방안, KP 2005-6, 한국교육개발원.
- 김미윤(2004), “비판적 다문화교육의 관점에서 본 청소년참여의 과제”, 『청소년문화포럼』 10, 한국청소년문화연구소.
- 김영아(1995), “호주의 한국어교육”, 『이중언어학』 제12호, 이중언어학회.
- 박갑수(2007), “재외동포 한국어교육의 오늘과 내일”, 『이중언어학』 제33호, 이중언어학회.
- 박병선(2007), “대만동포의 한국어 교육—대만 한국어 교육 전반적 현황”, 『이중언어학』 33, 이중언어학회.
- 박정은(2007), 다문화사회에서 생각하는 모어교육—이주가정과 국제결혼가정을 중심으로, 일지사.
- 박영순(1996), “미국의 이중언어교육이론 및 현황조사 연구”, 『이중언어학』 13, 이중언어학회.
- 박영순(1989), “제2언어 교육으로서의 문화 교육—한국어의 문화적 요소를 중심으로”, 『이중언어학』 5, 이중언어학회.
- 박외숙(1996), “다문화적 상담과정에서 나타나는 개인주의—집단주의 가치에 대한 검토”, 한국심리학회 창립 50주년 동계 연구 세미나 자료.
- 박준언(2006), “미국에서의 이중언어사용 및 이중언어교육에 대한 인식의 변천과정”, 『사회언어학』 3 (1), 한국사회언어학회.
- 백종학·심진영(1993), “미국 사회에서 한국인 2세가 겪는 言語와 正體性的의 문제”, 『이중언어학』 10 (1), 이중언어학회.
-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2006), 결혼이민자 가족의 사회통합 지원대책, 관계부처합동 결과보고서.



- 서혁(2004), “호주의 한국어교육 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한국어교육』 15 (2), 국제한국어교육학회.
- 설기문(1993), “다문화주의 입장에서 본 상담의 토착화와 한국적 상담의 가능성”, 『학생연구』 21, 동아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 설동훈(2003), 외국인노동자 지원 시민단체의 발전, 1990~2002년 : 쟁점과 과제, 제11차 시민사회포럼.
- 설동훈 · 한건수 · 이란주(2003), 국내거주 외국인노동자아동의 인권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 손호민(1990), 미국에서의 한국어 교육의 현황과 과제, 이중언어학 6, 이중언어학회.
- 신창용(2006), “EU의 다중언어정책과 소수언어 카탈루냐어”, 『이중언어학』 30, 이중언어학회.
- 오성배(2005), “코시안(Kosian) 아동의 성장과 환경에 관한 사례 연구”, 『한국교육』 32 (3), 한국교육개발원.
- 오은순(2007), 다문화 교육을 위한 교수·학습 지원 방안연구 (1),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윤갑정 · 고은경(2006), “다문화적 배경을 가진 유아의 한국 유아교육기관에서의 생활에 대한 질적 연구”, 『유아교육연구』 26 (2).
- 윤회원 외(2006), 다문화가정 교육 우수사례연구, 교육인적자원부.
- 이경호(1997), “다문화사회의 대두와 시민교육의 과제”, 『사회과교육』 25, 한국사회과교육학회.
- 이광정(1998), “미국에서의 한국어 교육 실태와 발전적 개선안—북캘리포니아 지역을 중심으로”, 『이중언어학』 15, 이중언어학회.
- 이선근(2007), “재미동포의 한국어교육”, 『이중언어학』 33, 이중언어학회.
- 이용승(2004), “호주의 다문화주의”, 동아시아연구 8, 고려대학교 동아시아교육연구단.
- 이원희(2006), “학교 중심의 지역 사회 재편. 초등 교육의 혁신 방향과 전략”, 2006년도 제5회 전국교육대학교 연합학술대회, 광주교육대학교 초등교육연구원.
- 이은희(2006), “미국 대학 한국어 강좌의 학습자 특성 연구—워싱턴 대학의 경우를 중심으로”, 『이중언어학』 32, 이중언어학회.
- 장한업(2005), “뉴질랜드 한국 교민의 자녀 이중언어교육에 대한 인식 연구”, 『어학연구』 41 (3),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
- 조영달(2004), “교사의 교실수업활동과 수업 방안에 관한 연구 : 호주의 사례”, 『시민교육연구』 36 (2), 한국사회과교육학회.
- 조영달 외 (2006), 다문화가정의 자녀 교육 실태 조사, 교육인적자원부.
- 조혜영 · 이창호 · 권순희 외(2007), 다문화가족 자녀의 학교생활실태와 교사 학생의 수용성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조혜영 · 서덕희 · 권순희(2008), “다문화가정 자녀의 학습수행에 관한 문화기술적 연

구”, 제18권 제2호, 교육사회학연구.

통계청(2008), 2007년 혼인·이혼통계 결과.

하수권(2008), “Tandem 학습법을 활용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 방안”, 세계화시대의 다중언어 다문화 교육, 이종언어교육학회 제13차 국제학술대회 자료집.

한국교육개발원(2004), 교육소의 집단의 교육 실태와 복지 대책, 제25차 KEDI 교육정책포럼.

한국교육개발원(2005), 외국인 근로자 자녀 교육복지 실태 분석 연구.

한국여성개발원(2003), 외국인 노동자 가족관련 정책 비교연구.

한재희(2004), “한국 문화와 다문화 목회상담”, 『목회와 상담』 5, 한국목회상담학회.

홍종선(2007), “재대양주동포의 한국어교육”, 『이중언어학』 제33호, 이중언어학회.

홍종선(2007), “해외이민초기사회의 한국어사용과 교육실태”, 『이중언어학』 제35호, 이중언어학회.

Bereiter C. & Englemann S.(1966), *Teaching disadvantaged children in the preschool*, Englewood Cliffs, NJ : Prentice-Hall.

Dicker, S. J.(1998), “Adaptation and Assimilation : US Business Responses to Linguistic Diversity in the Workplace”, *Journal of multilingualism and multicultural development* vol.19, No.4.

Jensen, A.(1969) “How much can we boost IQ and scholastic achievement?”, *Harvard Educational Review* 39 (1), pp.1-123.

Mary, S.(2005), “the Politics of Homogeneity : A Critical Exploration of the Anti-bilingual Education Movement”, *Proceedings of the 4th International Symposium on Bilingualism*, ed. James Cohen, Kara T. McAlister, Kellie Rolstad, and Jeff MacSwan, 1560-1566, Somervilles, MA : Cascadilla Press.

#### <참고 홈페이지>

프랑스의 이민자 아동 관련 기관 소개 ;

[http : //www.chez.com/accueilenfantsmigrants/adresses-utiles.htm](http://www.chez.com/accueilenfantsmigrants/adresses-utiles.htm)?

[http : //www.humanite.fr/](http://www.humanite.fr/)

캐나다의 다문화교육 관련 ;

[http : //www.statcan.ca/english/freepub/81-004-XIE/200410/immi.htm](http://www.statcan.ca/english/freepub/81-004-XIE/200410/immi.htm)

호주 교육관련 웹사이트 정보 ;

[http : //www.dest.gov.au/sectors/school\\_education/related\\_websites/default.htm](http://www.dest.gov.au/sectors/school_education/related_websites/default.htm)

호주 교육 기관 ;

[http : //www.dest.gov.au/sectors/school\\_education/default2.htm](http://www.dest.gov.au/sectors/school_education/default2.htm)

호주교육의 경로 ;

[http : //studyinaustralia.gov.au/Sia/ko/WhatToStudy/School.htm](http://studyinaustralia.gov.au/Sia/ko/WhatToStudy/School.htm)

호주교육의 역사적 발전 및 대강 ;

[http : //aei.gov.au/AEI/QualificationsRecognition/Default.htm](http://aei.gov.au/AEI/QualificationsRecognition/Default.htm)

호주 이민자 영어 교육 ;

[http : //www.immi.gov.au/living-in-australia/help-with-english/learn-english/index.htm](http://www.immi.gov.au/living-in-australia/help-with-english/learn-english/index.htm)

호주 통계청 ;

[http : //www.abs.gov.au/](http://www.abs.gov.au/)

<초록>

## 이중언어교육의 필요성과 정책 제언

권순희

본 연구는 다문화 시대에 이중언어교육의 필요성과 정책을 제안하기 위해 결혼 이민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와 호주, 미국을 중심으로 한 사례 검토를 하였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다문화 가정을 위한 이중언어교육이 미흡한 형편이다. 이중언어교육의 논의에서 중요한 개념은 모어와 계승어이다. 캐나다 통계청에 따르면, 모어는 개개인이 어렸을 때 가정에서 배운 첫 언어로 통계조사를 하는 시점에서 이해하는 언어이다. 계승어는 모어를 사회적 입장에서 규정한 용어이다.

이중언어교육의 이론적 배경을 살펴보기 위해 미국 이중언어교육법을 살펴보았으며, 언어 상이론에 입각한 이론을 논의하였다. 또한 유네스코 헌장을 살펴봄으로써 ‘누구나 언어의 차별없이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논의하였다.

이중언어교육을 통하여 학업 성취 능력의 향상을 도모하고, 소수와 다수의 다름을 이해하고 인정하고, 이중언어교육을 통해 자아 정체성을 확립한다는 이중언어교육의 목표를 제시하였다.

이중언어교육 현황을 미국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중언어교육의 긍정적인 입장을 서술하고, 결혼이민자의 의식 조사를 통해 이중언어의 필요성을 피력하였다. 그밖에도 호주의 이중언어교육 정책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이중언어정책을 KSL을 통한 이중언어교육 실시, 다언어교육정책과 다언어매체 정책, 보조 교사 활용, 다문화 이해 교육, 소수 언어 학습 기회 확대 등으로 제안하였다.

【핵심어】 이중언어교육, 정책, 결혼이민자, 설문 조사, 정체성

## &lt;Abstract&gt;

## Necessity of Bilingual Education and a Policy Suggestion

Kwon, Soon-hee

In Korea bilingual education for multicultural family is insufficient. By having interviews with marriage-immigrants, it was surveyed if they had minds to teach their children bilingualism. Marriage-immigrants usually immigrate into Korea without learning Korean, so they have troubles in communication. Also they have troubles in developing their children's thinking ability, because their husband and parents-in-law want the marriage-immigrants to bring up their children using Korean. Therefore bilingual education is necessary.

Through the study on foreign examples for bilingual education, a bilingual education policy was suggested for Korea. The earlier the bilingual education starts, the less social cost is paid. Language is not a simple measure for communication, but it contains the life and soul of the user. Therefore systematic approval of the use of minority's language will be valuable in the point that the life and sole of the minor race are acknowledged. In America, children of immigrants have tendency to learn their mother language when they enter undergraduate. This is because language is important for them to setup their identity.

Bilingualism can make a great contribution to bringing up the multicultural students to international citizen in this globalized times. The discussion about bilingual education will bring about a chance for widening the comprehension and concern about immigrant family.

**[Key words]** Bilingual education, Policy, Marriage-immigrant, Interview, Identity

【부 록】

1. 국제결혼가정 자녀

: 18,769명 ('07년 대비 39.6% 증가)

- 학교급별 비율 : 초 84.2%, 중 11.7%, 고 4%로 초등학교 재학생 비율이 월  
등히 높음
- 지역별 비율 : 경기(20.7%), 서울(12%), 전남(10%), 경남(8.2%), 충남(7.9%)
- 부모국적별 비율 : 일본(41.0%), 중국(22.3%), 필리핀(14.3%) 등

구분	초		중		고		계	
	인원	증감(%)	인원	증감(%)	인원	증감(%)	인원	증감(%)
2005	5,332		583		206		6,121	
2006	6,795	27.4	924	58.5	279	35.4	7,998	30.6
2007	11,444	68.4	1,588	71.9	413	48.0	13,445	68.1
2008	15,804	38.1	2,205	38.9	760	84.0	18,769	39.6

※ 모가 외국인인 경우가 90.2%(16,037명)로 대부분을 차지

2. 외국인 근로자 자녀

: 1,402명 ('07년 대비 15.9% 증가)

- 학교급별 비율 : 초 70.0%, 중 22.4%, 고 7.6%
- 지역별 비율 : 서울(38.2%), 경기(30.6%), 전북(8.0%), 경남(7.7%) 등
- 부모국적별 비율 : 몽골(26.2%), 일본(22.0%), 중국(20.3%) 등

구분	초		중		고		계	
	인원	증감(%)	인원	증감(%)	인원	증감(%)	인원	증감(%)
2005	995		352		227		1,574	
2006	1,115	12.0	215	△39.0	61	△73.1	1,391	△11.6
2007	755	△32.3	391	81.9	63	3.3	1,209	△13.0
2008	981	29.9	314	△19.7	107	69.8	1,402	15.9

※ 외국인 근로자 자녀의 경우 체류·신분 문제 등으로 인해 미취학 상태인 아동에 대한 파악은  
어려운 실정

## 3. 국제결혼가정 자녀 부모 출신국별 현황

시·도	부 모 출 신 국 별													
	일본	중국 (조선족)	미국	필리핀	베트남	태국	러시아	몽골	인도 네시아	남부 아시아	중앙 아시아	유럽	기타	계
서울	1031	501	59	230	73	34	35	71	28	45	18	29	105	2259
부산	266	207	14	110	33	7	43	0	20	15	8	12	35	770
대구	155	97	0	65	22	11	0	0	0	0	0	0	21	456
인천	223	198	6	115	31	8	7	18	9	8	5	7	27	662
광주	212	98	1	85	24	6	1	4	0	0	0	0	8	439
대전	162	49	18	35	20	4	10	3	0	0	0	0	16	327
울산	109	48	1	46	39	2	0	1	0	1	3	3	11	264
경기	1825	763	50	566	146	78	56	83	32	69	49	26	135	3878
강원	461	258	7	183	32	21	10	3	0	1	6	8	13	997
충북	417	291	6	157	44	18	4	17	1	3	3	10	22	993
충남	628	465	11	214	76	19	7	5	1	17	8	8	17	1476
전북	563	403	1	331	33	16	5	4	6	3	5	2	12	1384
전남	827	405	2	428	121	37	3	7	6	2	5	2	24	1869
경북	499	422	15	186	95	25	6	0	15	7	2	1	19	1292
경남	796	345	10	234	67	24	11	-	2	6	8	6	21	1,530
제주	84	30	4	24	8	1	2	0	1	2	2	2	13	173
합계	7,695	4,177	204	2,678	831	295	195	212	115	176	117	114	487	18,769
비율	41.0	22.3	1.1	14.3	4.4	1.6	1.0	1.1	0.6	0.9	0.6	0.6	2.6	100.0

4. 외국인 근로자 자녀 국적별 현황

시도	부모국적별													
	일본	중국 (조선 족)	미국	필리 핀	베트 남	태국	러시 아	몽골	인도 네시 아	남부 아시 아	중앙 아시 아	유럽	기타	계
서울	95	102	15	20	14	5	8	217	3	7	12	3	34	535
부산	1	4	4	-	-	-	3	1	1	2	1	-	4	21
대구	4	9	2	2	-	1	-	-	1	9	1	2	2	33
인천	-	6	1	-	-	-	-	8	2	-	-	-	4	21
광주	2	-	-	-	-	-	1	-	-	-	-	-	2	8
대전	14	7	-	2	1	1	3	2					7	44
울산	1	3	-	1	-	-	-	1					1	8
경기	85	69	8	37	8	-	18	129	1	22	20	5	27	429
강원	4	8	2	4	2								2	24
충북	1	19	2	-	-	-	-	-					-	22
충남	1	4	1	-	1	-	-	4					2	21
전북	39	35	1	29	3	1	-	1	-	-	2	-	1	112
전남	-	1	-	-	-	-	-	-	-	-	-	-	-	1
경북	-	4	2	1	1	-	-	1	-	2	-	-	-	11
경남	59	13	1	15	-	2	1	4	-	1	3	3	6	108
제주	2	-	1	-	-	-	-	-	-	-	-	-	1	4
계	308	284	40	111	30	10	34	368	8	43	39	13	93	1,402
비율	22.0	20.3	2.9	7.9	2.1	0.7	2.4	26.2	0.6	3.1	2.8	0.9	6.6	100

2008년 통계청 자료 제공 : 교육과학기술부 잠재인력정책과



## 【토론문】

## “이중언어교육의 필요성과 정책 제언”에 대한 토론문

이혜진(교육과학기술부)

## 1. 들어가며

최근 세계화, 국제결혼 증가 등으로 우리 사회는 급격히 다인종·다문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다. '08년 6월 현재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인 110만 명 이상으로, 전체 인구 50명 가운데 한 명이 외국인인 셈이다. 이제 학교 안에서 다문화가정 자녀를 만나는 것은 새로운 일이 아니다.

교과부 조사에 따르면, '08년 현재, 초·중·고에 재학 중인 다문화가정 학생은 약 2만여 명으로, 전년 대비 40% 가량 증가한 수치이다.

〈표 1〉 다문화가정 자녀 재학현황

구분	국제결혼가정 자녀								외국인근로자 가정 자녀							
	초		중		고		계		초		중		고		계	
	인원	증감	인원	증감	인원	증감	인원	증감	인원	증감	인원	증감	인원	증감	인원	증감
2006	6,795	27.4	924	58.5	279	35.4	7,998	30.6	1,115	12.0	215	△ 39.0	61	△ 73.1	1,391	△ 11.6
2007	11,444	68.4	1,588	71.9	413	48.0	13,445	68.1	755	△ 32.3	391	81.9	63	3.3	1,209	△ 13.0
2008	15,804	38.1	2,213	38.9	761	84.0	18,778	39.6	981	29.9	314	△ 19.7	107	69.8	1,402	15.9

(단위: 명, %)

그러나 다문화가정 중 다수는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상황이며, 한

국어가 서툰 어머니의 양육 등으로 언어발달 지체, 문화 부적응이 발생하는 등 어려운 교육 여건에 처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2005년도 가구당 최저생계비(4인 가족 113.6만원) 기준, 여성결혼이민자 전체 가구의 52.9%가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 수준(보건복지부, 2005)

따라서 이들을 위해 보충적인 교육 지원을 하는 한편, 이들이 가지는 다양한 배경을 강점으로 살릴 수 있도록 세심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자주 논의되는 것이 다문화가정 학생에 대한 “이중언어 교육”이다. 한국어 외에 부모출신국 언어를 능숙하게 구사할 수 있도록 하여, 다문화가정 학생을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중언어 교육”이 갖는 매력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이중언어 교육”을 어떻게 실행해야 하는지, 내용과 방법에 대해서는 아직도 연구 및 학교 현장에서의 부분적인 적용이 진행 중이고, 세부적인 부분에서는 아직 많은 과제가 남아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 2. 다문화사회에서의 이중언어 교육에 대해

### 가. 이중언어 교육의 정의 및 필요성

권순희 교수님 발제문에 미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이중언어 교육의 이론적 배경과 정의가 제시되어 있다. 미국에서 소수민족 등을 대상으로 주류 언어 위주의 단일언어 교육을 시도했으나 교육적 성과를 거두지 못하자, 그 대안으로 ‘언어 상이론’이 제시되었고, 이에 입각하여 ‘이중언어 교육’이 제안되었다고 한다. 결국 이중언어 교육은 언어의 우위를 구분하지

않고, 다만 그 차이를 인정하고 각각의 특성을 배우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이중언어(bilingual education) 교육’은 1) 두 개의 언어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교육, 2) 두 개의 언어를 통한 교육 등 두 가지를 포함한다고 한다.

이러한 이중언어 교육의 목표로, 1) 이중언어를 통해 학업성취 향상, 2) 다수자-소수자 집단간 차이의 이해, 3) 이중언어 교육을 통한 자아정체성 확립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중언어 교육을 통해 이러한 부분이 진행된다면, 이중언어 교육은 다문화 사회에서 서로를 이해하는 데 있어 강력한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 나. 외국 사례와 한국 상황의 비교

이중언어 교육과 관련하여, 미국과 호주 등 이민 국가, 유럽 등 다양한 국가가 국경 없이 교류하는 사례들이 주로 제시되고 있다. 이러한 사례를 통해, 정치·경제·사회·교육 등의 교류를 위해 공동의 언어 또는 몇 가지 공용어가 사용될 수 있는 환경의 유용성에 대해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국가의 사례가 우리 상황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시사점을 주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 같다.

우리 사회의 경우, 1990년대 후반 이후 국제결혼이 급증하면서, 그 자녀의 출생 및 취학 등이 증가하고 있고, 이들에 대한 언어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지원의 주요 초점이다.

다문화가정 자녀라고 해도, 국제결혼가정 자녀와 외국인근로자 자녀는 다른 특성과 성장 경로를 가진다. 일단 국제결혼가정 자녀의 경우, 출생과 동시에 한국 국적을 갖게 되고, 비록 한국어가 미숙한 어머니의 양육을 받지만, 한국어로 말하는 가족과 함께 생활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제결혼가정 자녀가 1차적으로 배워야 할 언어는 한국어일 것이고, 외국 출신의 어머니가 사용하는 언어는 소수 언어가 된다. 어머니, 외가의

식구 등과 소통할 수 있기 위해서는 어머니 출신국의 언어를 배울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어떤 방법으로 이에 접근할 것인지가 과제로 남는다.

다만, 국제결혼가정 자녀의 경우에도, 최근 늘고 있는 재혼한 국제결혼가정의 재혼 전 자녀의 경우, 외국인 자녀와 다름없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언어교육은 다른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외국인근로자 자녀의 경우, 가정에서 사용하는 언어가 모어가 될 것이고, 학교 또는 사회에서 접하게 되는 언어는 외국어로서의 한국어(KSL : Korean as a Second Language)가 될 것이다. 이러한 외국인근로자 자녀를 위해 한국어와 그들의 출신국 언어 교육 지원에 대한 부분은 미국, 호주 사례를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 다. 향후 과제

결혼이민자의 의식 조사 결과를 통해서도 이중언어 교육의 필요성과 당사자의 수요를 찾아볼 수 있었다. 대부분의 결혼이민자들이 자녀에게 본인출신국 언어 및 영어, 중국어 등 국내외에서 많이 통용되는 언어를 가르치고자 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나중에 고향을 방문하고 그곳에 있는 가족을 만날 때 자녀가 가족과 최소한의 소통이 가능하도록 교육의 필요를 느끼고 있는 것이다.

이중언어 교육이 본인의 뿌리와 문화를 이해하는 중요한 수단이며, 이를 고려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점은 충분히 제시되었는데, 구체적으로 이를 어떻게 진행해 가야 하는지, 이와 관련하여 필요한 정부 차원의 지원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리와 보완이 요청된다. 이중언어 교육과 일반 외국어 교육이 어떤 차이가 있고,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해서도 정리가 필요하다 할 것이다.

### 3. 다문화가정 학생 교육 지원 실적 및 방향

권 교수님의 발제문의 “이중언어교육 정책 제언”을 보면, 다문화가정 자녀의 언어·문화 이해 등을 위한 포괄적인 제안이 담겨 있다. 이러한 제안에는 공감을 하며, 이를 보충하는 차원에서 그동안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다문화가정 학생 교육과 관련하여 지원한 내용과 지난 10월에 마련한 「다문화가정 학생 교육 지원방안(’09~’12)」의 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 가. 다문화가정 학생 교육 지원 현황

다문화가정 학생 및 교육적 지원 필요 등을 고려하여, 교육과학기술부는 다문화가정 학생의 교육격차 해소 및 통합교육, 일반학생의 다문화 감수성 및 이해 제고 등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 1) 다문화가정 자녀를 위한 교재, 프로그램 개발

학교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 개발, 실태 분석 등 전문적인 연구 등을 수행하기 위해 ‘중앙다문화교육센터(서울대학교)’를 운영, 다문화가정 학생을 위한 한국어 교재, 교육 프로그램, 교사 연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다.

다문화가정 학생을 위한 한국어 초급교재를 발간하여 11월경에 교육청, 학교 등에 보급하였으며, 8월, 11월에는 다문화가정 학생 지도교사를 대상으로 ‘다문화교육’ 연수를 실시하여 교사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서로의 고민과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였다.

##### 2) 시·도교육청별 맞춤형 다문화교육 지원

시·도 교육청별 다문화가정 학생 현황, 지원 프로그램 등을 고려하여 문화체험활동, 한국어(KSL)반 운영, 멘토링 등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다문화교육 사업 실시를 지원하였다. 이를 통해 다문화가정 학부모·학생이 함께하는 문화체험활동, 다문화가정 학생을 위한 집중교육 프로그램, 멘토링 등 현장에서 필요한 프로그램들이 개발·실행되고 있다.

### 3) 학교 단위의 다문화교육 강화방안 모색

한편, 학교 단위의 다문화교육 실행방안 등을 마련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정책연구학교(10개교)를 지정·운영 중이다. 정책연구학교에서는 다문화가정 학생의 학습결손 해소 프로그램, 일반학생의 다문화 이해 제고, 이중언어 교육 등을 위한 방안을 모색해 왔으며, 지역 내 다문화교육의 거점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 부산 주감초등학교, 광주 광천초등학교, 대전 비래초등학교, 경기 미원초등학교, 경기 양지고등학교, 충남 부리초 병설유치원, 전북 장수초등학교, 전남 천태초등학교, 경북 우곡초등학교, 경남 안남중학교

### 4) 「다문화가정 학생 교육 지원방안(’09~’12)」 수립

교과부는 다문화가정 학생 등에 대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교육 지원을 위해, 시·도교육청 및 학교 현장 의견수렴, 전문가 협의 등을 거쳐 『다문화가정 학생 교육 지원방안(’09~’12)』를 수립(’08. 10)하였다. 이에 따라, 교과부 및 시·도교육청은 ’09~’12년까지 다문화가정 학생 교육 지원에 약 700억 원의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 나. 「다문화가정 학생 교육 지원방안(’09~’12)」의 주요 내용

### 다문화가정 학생, 맞춤형 교육서비스 받아

다문화가정 자녀의 학령 단계별로 언어 및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맞춤형 교육을 지원할 계획이다. 다문화가정 학생의 한국어·기초학력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언어·인지 진단도구 등을 개발하고, 진단 결과 한국어 능력이 부족한 경우 수준별 보충프로그램(방과후학교)을 제공한다.

특히, 기초학력 진단평가 결과, 기초학력 부족학생에 대해서는 기초학력책임지도제를 실시하고 초·중등 예비교사 및 교사 등을 활용한 교과지도, 숙제지도 등 방과후 멘토링도 지원하게 된다.

### 다문화가정 학부모, 자녀교육에 보다 쉽게 참여

다문화가정 학부모의 재학생 자녀 학습 지도능력 함양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학교, 평생교육시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보급하고, 다문화가정에 대한 무료교육도 확대한다. 아울러, 다문화가정 학부모의 교육 참여를 높이기 위해 학교단위 다문화가정 학부모, 자녀가 함께하는 “자녀행복교실”을 운영(운영경비 지원, 참여 가정에 장학금 지원 등)하여 한글·한국 문화 이해, 자녀교육 정보도 교환하게 된다.

특히, 자녀의 학교생활·숙제지도(준비물) 등에 어려움을 겪는 다문화가정 학부모를 위해 한국의 학교·교육제도 및 필요한 정보를 담은 학교생활 안내책자(한글 및 일본어, 중국어, 베트남어, 몽골어 등)를 제작하여 제공한다. 또한 ‘다문화가정 학부모 상담주간’ 등을 통해 자녀교육 상담 등을 지원하고, 한국어가 서툰 학부모를 위해 자원봉사 통역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

## 교사·예비교사, 다문화 이해연수·교과강좌 이수로 다문화 이해의 폭 넓혀

한편, 다문화 가정 학생들을 체계적으로 교육할 수 있도록, 교사용 매뉴얼을 개발, 보급하고, 교원의 다문화 이해를 제고하고 다문화가정 학생이 재학하는 학교의 교장·교감 등은 다문화연수를 받도록 하며, 시·도 교육청별로 교사 직무연수에 ‘다문화이해 연수 과정’(30, 60시간)을 개설, 교사를 위한 다문화이해 연수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예비교사를 위해 전국의 교대에 다문화교육 강좌를 개설하여 다문화 관련인식을 확립하고 아울러, 도덕·사회 등 교과서 집필 및 다문화 관련 교육 자료를 개발하여 보급한다.

## 학생, 학부모, 다문화이해교실·체험공모전 등을 통해 다문화 접할 기회를 높여

또한, 학교내 따돌림, 차별의식 등을 없애고 다문화 가정 자녀들이 부모에 대한 자긍심을 갖도록 다문화가정 학부모가 출신국의 문화·풍습을 소개하는 ‘다문화 이해교실’ 운영을 통해 타 문화에 대한 경험 및 이해 제고를 지원하고, 다문화가정 학생이 부모 출신국의 문화를 이해하고 이중언어를 구사하는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중언어 교육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우수사례 중심의 다문화 이해교육 영상자료를 개발·보급하고 학생, 교사, 학부모 대상의 다문화교육 관련 수기공모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학교에서는 재량활동, 특별활동 시간에 학생들에게 다문화이해교육이 가능하도록 알기 쉬운 다문화 체험교재·다문화사례 프로그램을 보급할 계획이다.



## IV. 이중언어 교육 정책의 방향

다문화가정 자녀를 위한 포괄적인 지원에 대해서는 앞서 논의하였기 때문에, 이중언어 교육에 초점을 맞춰 몇 가지 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첫째, 이중언어 교육은 제1언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을 전제로 하여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두고 동화주의적 접근이라고 지적하는 이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다문화가정 자녀가 우리 사회에서 잘 교육받고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기본적인 능력을 갖춘 후에 부모 출신국의 언어도 병행하여 구사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둘째, 이중언어 교육은 단순히 외국어를 더 배우는 것이 아니라, 나의 뿌리, 토대가 되는 부모 출신국의 언어를 배운다는 의미가 있다. 본인의 배경에 대한 정확한 인식, 균형 있는 이해를 위해 부모출신국의 언어, 한국 내에서는 소수 언어인 말과 글을 배워야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자아 정체성, 긍정적인 자기 인식 등이 가능할 것이다.

우리부에서 마련한 「다문화가정 학생 교육 지원방안」에도 다문화가정 자녀를 위한 이중언어 교육이 담겨 있다. 이중언어 교육을 '10년부터 실시할 계획으로, 그 대상은 한국어와 부모출신국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학생이다. 초등학교 4~6학년 이상으로, 부모출신국 언어를 배우고자 하는 학생 등을 대상으로 이중언어 교육을 지원하고자 한다.

이들에 대한 이중언어 교육을 위해 학교-교육청-대학이 MOU를 체결하여, 다문화가정 자녀가 부모출신국 언어를 배울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구성하고, 교육 인력을 학교에 파견하거나 학생이 대학 등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서울시 교육청 등에서도 이중언어 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이중언어 교육 강사 연수를 실시할 계획이며, 그 기본적인 방향은 앞서 말한 내용과 궤를 같이 하여 진행될 필요가 있다. 일본, 중국, 러시아 등 우리 사회에서 비중이 높아지는 국가의 언어를 중심으로 이중언어 교육을 예정하고

있는데, 언어·문화 측면에서 효과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밀한 계획이 필요하다. 해당 언어 구사가 가능한 전문인력을 대상으로 교수·학습법 등 연수를 통해, 부모 출신국 언어 및 문화 등을 배우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연수해야 할 것이다.

한편, 한국어 이해가 부족한 다문화가정 학부모를 위해 자녀 학교생활 안내책자를 한국어와 외국어를 병기하여 제작, 배포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다문화가정 학부모의 한국어, 학교생활 관련 이해가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중언어 교육과 관련하여 언어 교육 및 습득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적기를 찾아내 지원할 필요가 있으나, 기본적으로는 한국어를 자유롭게 구사한 후에 부모출신국 언어를 배우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가정, 학교나 기관에서 이중언어 교육을 하게 되는 경우, 체계적인 교육을 위해 교육과정, 교재 등이 요구되는데, 이를 위해 주한 대사관 등과 연계하여, 해당 국가의 교과서 등을 활용하는 방법도 검토해볼 수 있다.

일부에서는 다문화가정 자녀의 부모출신국 언어에 대한 교육 및 그 결과 활용을 높이기 위해 제2외국어 교과 또는 수험과목에 해당 언어들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한다. 이 내용은 장기 과제로 교육과정과 함께 검토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 V. 나가며

다인종·다문화 등 사회의 구성원이 다양해지면서, 구성원의 다양성 만큼이나 다양한 언어가 공존하게 된다. 또한 각각의 언어에 담겨있는 정신과 뜻을 고려할 때, 다양한 언어를 통해 그 사회의 문화적 토양 등이 풍부해진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다문화사회에서 다양한 언어로 소통하고 이를 배울 수 있는 여건은 필요하다고 하겠다.

또한, 다문화 사회를 맞아, 다문화가정 자녀의 교육을 지원하면서 “이중언어 교육”은 그들의 가능성을 키우면서, 교육 소외계층이 아닌 세계를 품을 수 있는 글로벌 인재로 이들에 대한 인식을 전환할 수 있는 중요하면서 매력적인 수단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러한 필요성 및 목표가 현실에서 구체화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미국, 호주 등의 사례가 이중언어 교육의 선행사례로 많이 인용되고 있으나, 이를 우리 나라에 직접 적용하는 데에는 여전히 한계가 있다. 따라서 우리 환경의 특수성 등을 고려한 이중언어 교육 방법에 대한 제안이 필요하다고 본다. 효과적인 이중언어 교육을 위한 시기, 대상, 방법, 내용 등 세부적인 방안에 대한 연구와 적용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이번 학술대회의 주제인 ‘다문화사회와 국어교육’과 관련하여, 앞으로 국어교육의 방향이 궁금하다. ‘국어교육’과 ‘한국어교육’의 차이, ‘이중언어 교육’과 관련하여 국어교육의 방향성, 외국인이 한국어를 배울 때 어려움을 겪는 발음과 맞춤법, 경어법 등에 대한 교육 등이 말이다. 다문화 사회로 이행하면서 우리의 말과 글을 어떻게 가르칠지, 다양한 언어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관심과 도전이 계속 커질 것으로 생각된다. 이 학술대회가 그 방향을 찾고 대응해 가는 소중한 자리가 되었으면 한다.